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 02)552-1080~3 전송 02)552-1082 // www.chongji.or.kr

사 설

오세대 제도(五世帶濟度)

6년간의 고행 끝에 보리수 아래에서 싯달타 태자는 드디어 깨달음을 얻었다. 생로병사의 문제로 고민하고 번민을 거듭하던 고타마 싯달타는 호화로운 궁중생활을 버리고 출가를 한 후 오랜 수행 끝에 드디어 성도(成道)하여 부처님이 되었다. 그러나 혼자 법열(法悅)에만 젖어 있지 않고 무명 중생들을 제도하시고자 전법(傳法)의 길을 택하셨으니 참으로 깨달으신 참 부처님이시자 인류의 큰 스승이시다. 생로병사의 고통에 허덕이고 있는 중생들의 아픔과 슬픔은 곧 석가모니의 아픔이고 슬픔이었다. 중생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과 다름없이 보는 자비심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대자대비(大慈大悲)하다고 하는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을 펼친 것은 바로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는 한 마음에 비롯된 것이다. 그러한 자비심이 없었다면 석존은 독각(獨覺)에 머물러 혼자서 법열(法悅)에 빠져 있었을 것이다. 마냥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는 각자(覺者), 부처님이라 부르지 않는다. 자비한 마음으로 중생을 제도하고 남을 위하여 법을 펼쳤을 때 우리는 부처님이라 부른다.

석존께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일체중생을 위하여 법을 펼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중생 제도와 전법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부처님의 참 제자가 되는 불교의 바른 수행이다. 부처님 법을 전하는 일에 소극적이어서는 안된다. 남에게 법을 권하지 않고 혼자 조용히 법을 즐기면 그것은 참 불자가 아니다. 나 혼자 열심히 절에 다니는 것이 불교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미 불교가 아니다. 내 가족, 내 이웃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고 같이 닦아 나갈때 부처님의 참 제자라 말할 수 있고 살아 있는 불교인 것이다. 부처님의 법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하고 전하는 것이 대승보살의 길인 것이다.

중생제도를 위하여 총지종단에서는 오세대 제도(五世帶濟度)를 화도방편(化度方便)으로 삼고 있다. 오세대 제도(五世帶濟度)는 다섯 가구를 교화하여 불문(佛門)에 들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총지종에서만 유일하게 쓰여지고 있는 말이다. 종조 원정 대종사께서 제정하신 오세대 제도는 바로 석존의 오비구(五比丘) 제도에서 출발하고 있다. 석존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뒤에 바라나시의 녹야원으로 가시어 아약·교진여 등의 다섯 비구(五比丘)를 교화하게 되었는데, 다섯 비구는 멀리 석존이 오는 것을 보고 '청정한 행에서 퇴장한 사문' 또는 '도심(道心)에서 타락한 행자(行者)'라고 경시하고 서로 약속하기를 '불타에게 공경존중하는 태도를 표하지 말자'고 했다. 그러나 석존이 가까이 오자 그들은 부지불식(不知不識)간에 함께 일어나서 인사하고 혹은 자리를 펴 드리고 혹은 의발(衣鉢)을 드리며 머리를 발에 닿도록 조아리고 가르침을 간청했다. 석존은 그들을 위하여 생사를 벗어나는 중요한 도(道)로써 고집멸도(苦集滅道)의 4성제(四聖諦)를 설하자 이것을 듣고서 아약·교진여가 최초로 번뇌를 단절(斷除)하여 아라한과(阿羅漢果)를 증득하고 다른 사람도 차례로 번뇌를 끊고 아라한과를 완전히 증득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석존의 초전법륜(初轉法輪)이자 최초의 하화제도(下化濟度)였던 것이다. 종조님의 화도방편의 첫걸음은 바로 석존의 오비구 제도와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다섯 세대는 고사하고 다섯 사람을 부처님의 가르침 속으로 인도하였는지 스스로 반성해볼 일이다. 나는 과연 오세대 제도를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였는가? 나의 신행생활을 점검해보는 계기가 된다. 그런 점검이 없다면 나의 신행은 집전(集前) 없다. 부처님의 법, 가르침을 다른 이에게 전하여 주었을때 가장 큰 공덕이 있는 것이다. 무량한 공덕을 얻는 길,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을 제도하는 것이다.

**한일 불교우호교류대회 일본 삿포로에서 열려
원송 통리원장 등 참석, '한-일 불교 화합' 논의**



▲제29회 한일 불교우호교류대회 기념촬영

제29회 한일 불교우호교류대회가 6월 9일부터 13일까지 일본 삿포로 중앙사에서 총지종 원송 통리원장을 비롯한 한일 불교계 대표단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선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를 참회하는 '인류화합 공생기원비(人類和合共生祈願碑)'를 건립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와 일한불교교류협회의는 평화기원 법요식에 앞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기원비는 여주 신흥사에 조성되며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30차

대회 때 제막식을 거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비문에는 일본이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을 참회하며 전쟁희생자를 위령하고 전쟁 없는 평화를 기원한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이번 합의는 교류 30주년을 앞두고 한일 불교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킬 이정표를 세웠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공동선언 발표와 평화기원법요식 외에도 양국 불교계는 '선(禪)과 문화'를 주제로 한 학술강연회를 통해 서로의 불교문화를 소개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총지종 원

송 통리원장 비롯해 총무부장 경원 정사, 재무부장 시정 정사,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회장 지관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이사장 홍파 스님(관음종 총무원장), 사무총장 남정 스님(총화종 총무원장), 상임이사 세영 스님(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명성 스님, 등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일한불교교류협의회 회장 미야바야시 쇼겐 스님 외에 협의회 고문 미나미사와 도닌 스님, 부회장 모찌다 니츄,후지타 류조 스님 등이 함께 했다.

**진주 화음사 교도자녀 박정수 양,
꿈나무 명창 판소리 무대에서 열창**



▲'꿈나무 명창' 공연 기념사진. 이랫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박정수 양

진주 화음사 교도자녀 박정수 양이 5월 30일 국립극장 달오름 극장에서 열린 판소리 무대서 열창해 감동을 받았다. 이 공연은 국립창극단(예술감독 유영대)이 판소리를 배우는

어린이를 포함 30세 미만의 소리꾼들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받아 2001년부터 매년 열고 있는 '차세대 · 꿈나무 명창' 공연이다.

올해에는 총 지원자 21명 가운데 오디션을 통과한 8명이 무대에 섰다. 중학생까지의 어린이 소리꾼을 대상으로 하는 '꿈나무 명창'으로는 여덟살 동안내기 초등학생인 박정수, 박혜빈 양이 뽑혔다. 고교생 이상 30세 미만의 소리꾼을 뜻하는 '차세대 명창'으로는 김소진, 최호성, 김주영, 노혜현, 최진, 신정혜 씨 등 서울 시내 음대에 재학 중인 6명이 선발됐다.

이들은 적벽가, 심청가, 춘향가 일부 대목을 10~15분 씩 들려준다.

총지학대령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미안파를 덮쳐 10만 명이 상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추산되는 '킬러 사이클론' 나르기스, 직접 피해자만 1,0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쓰촨(四川) 성 지진, 미국 미주리 주의 토네이도, 플로리다 주의 산불... 올해도 전 세계에서 갖가지 재해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홍수는 빈도가 늘어나고 가뭄은 기간이 길어지고 폭풍은 강도가 세졌다. 세계 최대 재보험회사인 뮌헨레 그룹은 최근 발표한 2007년 보험금 지급 목록에서 지난해 발생한 자연재해가 950여 건으로 회사가 생긴 이래 최대라고 한다.

이런 기후변화가 왜 일어나는 걸까?

먼저 지구온난화의 원인을 살펴보면 인구 증가와 산업화에 의한 화석연료의 사용, 급증, 열대 우림의 파괴, 가축 분뇨 등에 의한 이산화탄소, 메탄 등의 기체를 과다하게 방출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에어컨, 냉장고 등에서 나오는 프레온가스는 온실효과를 증가시키고 지구의평균

기온을 상승시키므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일어난다. 그 결과 사막화나, 빙하가 녹는 현상이 생긴다. 1920년대 이후에 생산 활동을 시작하며 심하게 급증하였다.

온난화 현상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실천방법에는 첫째, 난방을 적당히 틀기가 있다. 겨울 난방 적정온도 18~20도, 여름 냉방 적정온도 26~28도이다.

둘째로는 짧은 거리 걸어 다니기, 자전거 타기 등이 있다.

셋째, 안쓰는 전기코드 빼놓기가 있는데 가정에서 쓰는 전체 전력의 10%를 절약할 수 있다. 또 텔레비전 시청을 하루 1시간 단축하면 연간 한 대당 24Wh/h를 절약할 수 있고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360여원을 절약할 수 있다 한다.

넷째, 나무 많이 심기, 종이와 목재 소비량 줄이기, 불장난 않기, 산불예방, 등이 있다.

하나뿐인 지구, 내가 가꾸고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킬 것인가? 작은 실천이 자연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바로 나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 법일(통리원 사무국장)

하반기 49일 불공 15일 회향

불교총지종은 7월 15일 전국 사원에서 총기 37년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회향 불사를 봉행한다. (수호국계 주다라니경)에 근거한 진호 국가불공은 한 해 상·하반기 각각 49일간 2번 실시된다.

종조법집전 "49일불공 정진의 1차 목적은 나라발전과 호국에 있다. 이 정진은 부국강병으로 외적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불사이드로 정부를 비방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없애고, 만약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으면 곧 바르게 되도록 회상하고 사원해야 한다. 2차 목적은 개인적인 것으로, 조상을 위한 천도불공과 자녀 잘되기를 소원하는 서원불공이라 할 수 있다. 상반기 49일불공이 '자녀 잘되기'를 기원하는 불공기간이고, 하반기 49일불공은 '현재 부모에 효순하고 선망부모의 해탈'을 발원하는 불공기간이다."라고 설명해 주었다.

알림

- ▶7월 7일부터 월초불공이 봉행됩니다.
- ▶7월 16일과 17일 전국 각 교구에서 하반기 49일 회향 방생법회를 봉행합니다.
- ▶7월 17일 오전 11시 대전 만보사 2회 연꽃축제 개막법회가 열립니다.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서울 통리원 2층 반야실에서 총지불교대학 강좌가 열립니다. 교도와 일반인 누구나 수강 가능합니다.
- ▶정각사 단월회에 김광원 각자님이 새회원이 되셨습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눕시다

2008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개천사 경원 6.2 10,000	기로원 수승원 6.24 10,000	밀인사 이연수 6.27 10,000	수인사 김봉기 6.30 10,000	정심사 오윤보 6.30 5,000
개천사 정법수 6.2 10,000	기로원 자선화 6.24 10,000	밀인사 정정희 6.30 5,000	수인사 한애숙 6.30 30,000	지인사 허성동 6.18 20,000
개천사 김명현 6.3 10,000	단음사 이기성 6.10 3,000	백월사 박인국 6.24 5,000	시법사 환수원 6.2 20,000	지인사 연등원 6.26 10,000
개천사 이상섭 6.17 10,000	단음사 박호열 6.30 10,000	백월사 박인철 6.24 5,000	시법사 환수원 6.24 10,000	총지사 최순전 6.4 116,000
개천사 경원 6.24 10,000	단음사 박주열 6.30 10,000	백월사 류승태 6.25 10,000	실보사 이순옥 6.5 5,000	총지사 이인성 6.18 30,000
개천사 정법수 6.24 10,000	단향사 이운별 6.3 10,000	백월사 이갑진 6.25 10,000	실보사 조순애 6.18 10,000	총지사 선도원 6.26 10,000
개천사 무명씨 6.27 5,000	단향사 행원심 6.3 10,000	백월사 이경순 6.30 10,000	실보사 이순옥 6.23 5,000	통리원 지정 6.24 20,000
개천사 이희권 6.30 10,000	만보사 지성 6.2 10,000	백월사 박삼순 6.30 10,000	실보사 송희준 6.23 10,000	해정사 최영례 6.16 10,000
관성사 김철우 6.5 10,000	만보사 승효제 6.2 10,000	법천사 김정숙 6.4 5,000	실지사 무명씨 6.18 10,000	해정사 정은선 6.23 20,000
관성사 박현숙 6.5 10,000	만보사 정덕순 6.2 5,000	법천사 시정 6.24 10,000	실지사 정경자 6.26 5,000	해정사 지성인 6.23 20,000
관성사 박현숙 6.20 10,000	만보사 이경순 6.2 10,000	법천사 원만원 6.24 10,000	실지사 송우섭 6.30 5,000	해정사 서령 6.25 10,000
관성사 황성녀 6.26 10,000	만보사 민순분 6.13 10,000	법천사 박말조 6.24 5,000	실지사 김기봉 6.30 5,000	해정사 해원정 6.25 10,000
관성사 김병석 6.30 10,000	만보사 이종구 6.13 5,000	법천사 김정숙 6.30 5,000	실지사 한수연 6.30 5,000	해정사 오혜민 6.25 10,000
관성사 이혜원 6.30 5,000	만보사 이현진 6.18 20,000	법천사 이희숙 6.4 10,000	운천사 반야화 6.10 20,000	회음사 강승훈 6.30 10,000
관성사 해정 6.30 10,000	만보사 지성 6.24 287,000	법천사 원 당 6.14 10,000	운천사 반야화 6.27 10,000	흥국사 여순애 6.5 10,000
관성사 정법계 6.30 10,000	만보사 승효제 6.24 10,000	법천사 표심해 6.14 10,000	정각사 김문수 6.9 10,000	흥국사 밀공정 6.5 10,000
관음사 신막심 6.12 10,000	만보사 정덕순 6.26 5,000	삼일사 원송 6.2 10,000	정각사 구정희 6.13 20,000	흥국사 이숙남 6.19 30,000
기로원 상지화 6.24 10,000	밀인사 정정희 6.4 5,000	삼일사 인법계 6.2 10,000	정각사 변순개 6.16 5,000	장복순 6.20 30,000
기로원 불멸심 6.24 10,000	밀인사 신대식 6.13 5,000	선림사 심지장 6.18 10,000	정각사 박수빈 6.20 10,000	
기로원 법정화 6.24 10,000	밀인사 이해성 6.13 5,000	선림사 정복지 6.18 10,000	정각사 조현필 6.24 5,000	
기로원 대자행 6.24 10,000	밀인사 신동희 6.13 5,000	성화사 우담바라 6.17 50,000	정각사 자비회 6.30 30,000	
기로원 대관 6.24 10,000	밀인사 신동의 6.13 5,000	수인사 공경원 6.26 10,000	정각사 윤선자 6.30 10,000	
기로원 총지화 6.24 10,000	밀인사 이재호 6.23 10,000	수인사 권오남 6.26 20,000	정심사 박옥란 6.18 20,000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한 기여가 됩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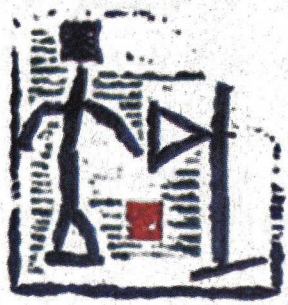
1. 단체일 경우 회계장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산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552-1083, 3452-7485

◇위 금액은 전액 불우교도 가정 돕기에 사용됩니다.

풍경소리

자신을 들여다보라



만일 사람들이 그대를 나쁘게 말하거든
오로지 자신을 들여다보라.
그들이 틀렸다면 그들을 무시해 버려라.
만일 그들이 맞다면 그들에게 배워라.
어느쪽이든 화를 낼 필요는 없지 않은가!

- 아잔 차 대선사(태국)

내부의 적을 제거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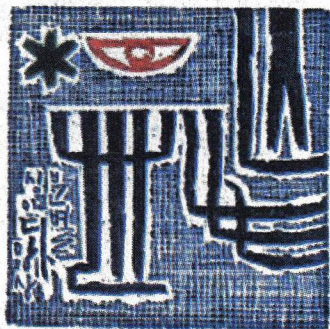
외부의 적은 영원
하지 않다.
적에게 존경심을
보여주면
금세 친구가 된다.
하지만 내면의 적
은 영원하다.
내면의 적과는 타
협할 수가 없다.
이 적은 마음 속
에
동지를 틀고 산다.
때문에 이 모든
나쁜 생각들과



당당히 맞서서
그것들을 제어해야 한다.

-달라이 라마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보인다) 중

할머니의 눈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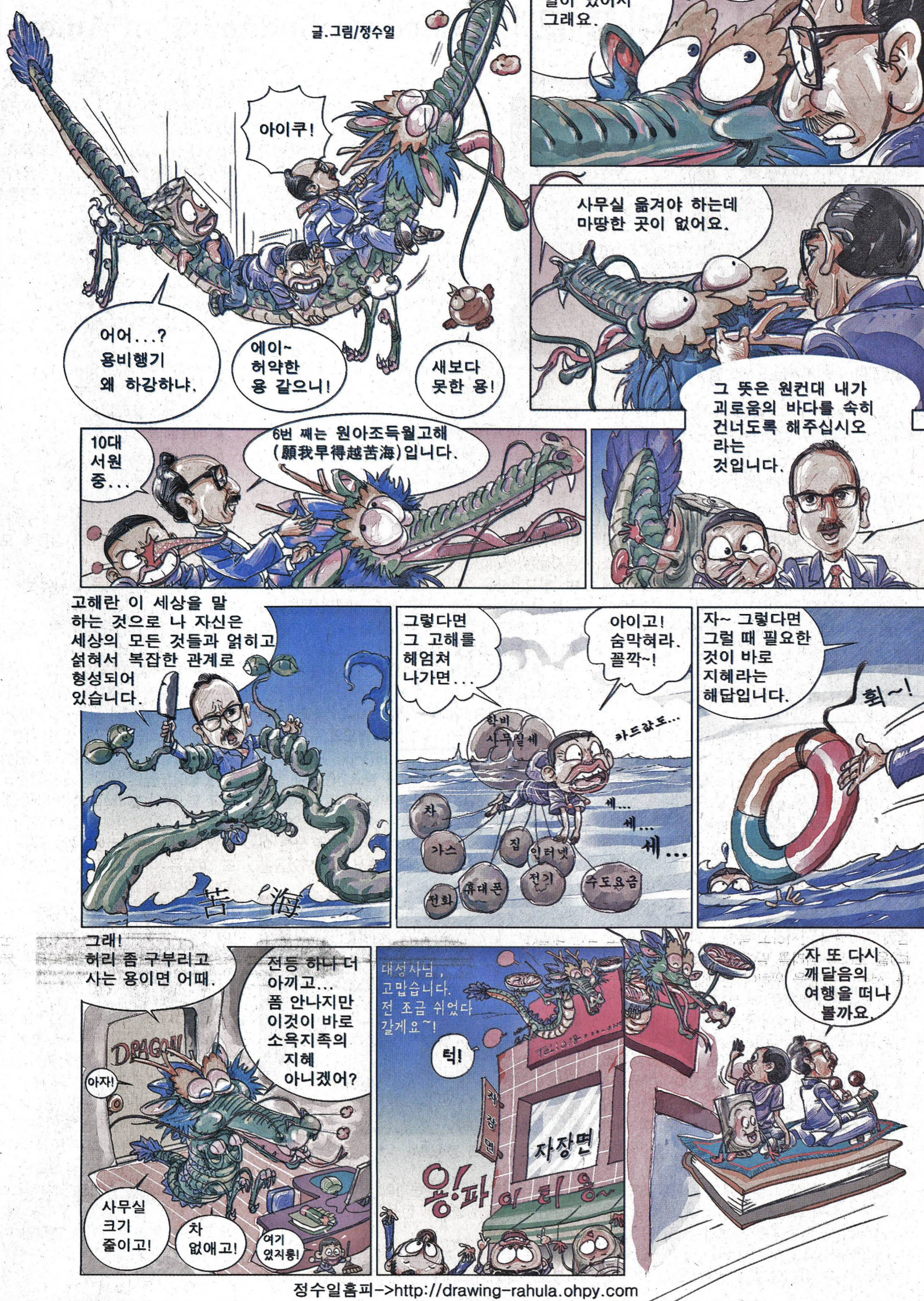


장거사의 딸 설이는 일찍이 마조스님께 가르
침을
받았습니다.
그 후 가정을 이루어 다복한 노파가 되었건
만
갑자기 사랑하는 손녀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할머니가 애통해 하며 목놓아 우는 것을 옆
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도(道)를 통했다는 사람도 별 수 없군. 우리
와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
할머니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슬플 때 우는 것은 자연스런 일인데... 무엇
이
달라져야 한단 말인가. 일부러 구분 짓지 마
시게.
분별심이 다 망상(妄想)이려네.'

- 맹란자/수필가

원정대성사와 함께 하는
VISUAL밀고 ~전수경편 제29화~

글.그림/정수일



이달의 명상

삼독심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분하고 성내는 마음으로는
결코 법(法)을 보지 못하고
분하고 성내는 마음으로는
결코 도(道)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분노를 잘 버리는 사람은
복과 기쁨이 항상 그를 따르리.

- 법구경



제18회 불교총지중

여름학생 수련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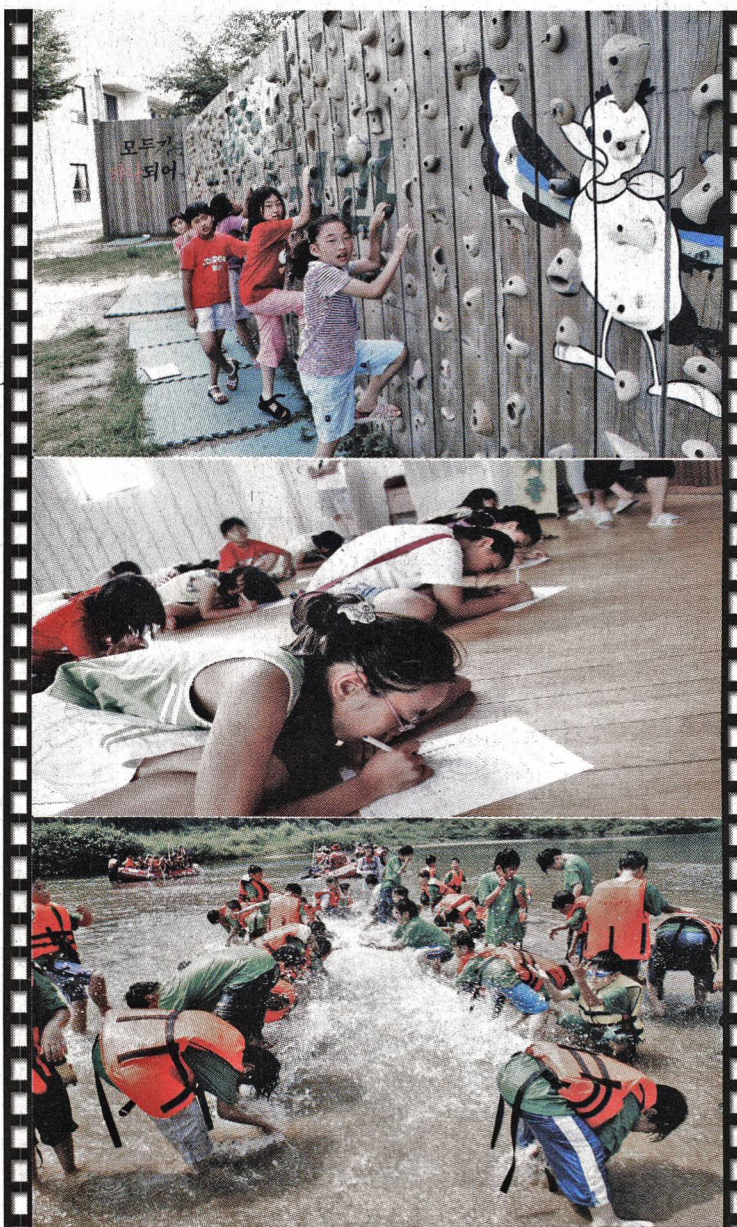
모험과 도전정신을 기르고 불교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자리인 총지중 여름 학생수련법회에 어린이와 청소년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한려해상 국립공원에서 열리는 이번 여름수련법회는 청소년 여러분들이 호연지기의 기상과 강인한 정신력을 배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 일 시 : 총기37년 7. 28~8. 1
1차 : 7. 28~30(어린이, 청소년)
2차 : 7. 30~8.1(종립 동해중학교 학생)
- ◆ 장 소 : 경상남도 남해 한려유스호스텔
- ◆ 대 상 :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자원봉사)
- ◆ 참가비 : 1인당 2만원
- ◆ 준비물 : 세면도구, 필기구, 여벌 옷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전화 : 02)552-1080~2
전송 : 02)552-1082 http://www.chonail.or.kr



세계속의 불교 ⑫

미국의 현대불교 ① (Modern Buddhism of America)



▲맨하탄 주의 부처님 오신날 행사

불교는 미국에서 3번째의 신도를 가지고 있는 종교지만 불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종교이다. 여기에서, 널리 퍼져있는 미국의 불교철학과 그의 성격, 교파 등에 관하여 분석해 보기로 한다.

사실 미국의 불교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에 관한 것은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몇몇 학설이 그 맥을 이루고 있다. 어떤 학자들은 중국의 스님들이 콜롬부스가 미국을 발견하기 전에 미국에 정착했다고 주장했고, 다른 학자들은 아직 서부에 정착한 아시아계의 이민집단, 중국, 일본인들에 의하여 미국에 불교가 소개되었다고 주장한다. 또 이와는 달리 옛날 미국의 원주민들이 티베트인들 후손으로서 티베트불교가 아메리칸 인디언 속에 자리잡았다고 주장한다.

여러 가지 미국불교의 시작에 관한 학설이 있으나, 여기에서 결론지을 수 있는 것은 미국불교의 역사는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것보다는 훨씬 깊고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 미국불교의 시작은 미국에 이주한 아시아인들이 함께 옮겨온 그들의 불교정신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들 이민인들이 그들의 종교를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중 가장 활발히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1898년에 샌프란시스코에 시작된 진도신수이다. 이 진도신수는 북미에 종교전파의 임무를 띠고 1942년에 미국불교로서 종단을 형성하여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다. 또한 천대종(중국인), 신종수(일본) 등이 미국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사실 하와이가 1959년에 미국의 한 주로서 인정되었지만 그들의 불교는 그들이 사탕수수밭의 노동력으로 이주할 때부터 함께 해온 1868년에 뿌리를 두고 있다. 미국불교의 중요한 역사적 현상은 1893년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종교대회를 통하여 찾아볼 수 있다. 이 대회에 참가한 불교인들에 의하여 불교정신이 미국인들에게 심겨지기 시작했다.

미국불교의 일반교도는 선에서 시작되었다. 불교학파의 스승인 소젠 시큐와 미국에 선을 포교하였다. 이 소젠의 선을 통한 불교의 가르침은 1905-6년에 미국에서 크게 부흥하였고 이러한 불교활동이 뉴욕시에 미국불교협회를 설립하였고, 미국불

교센터는 1930년에 소젠의 제자인 소젠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현재에도 이 센터는 뉴욕 맨하탄31가에 '미국 불교참선센터'로 존재하며, 선을 가르치고 있다. 또한 아시아의 불교학자들이 미국에 그 분교를 설립하여 미국포교불교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여기서 지적할 하나는 많은 미국인들이 아시아에 불교부흥에 기여한 미국불교의 역할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875년도에는 아시아는 불교가 한국, 일본, 스리랑카, 인도 등에서 쇠퇴하고 있을 때 현대 기술과 서구문화를 아시아에 소개하는 서구인들이 아시아인들의 전통적인 문화 즉 불교 등을 함께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예를 들면 미국불교 부흥의 초석을 마련한 견신론자들이 아시아 불교부흥에 큰 역할을 하였다.

많은 아시아인들이 서구문화에 영향을 받아 그들의 전통적인 종교인 불교를 멀리하고, 서구종교인 기독교나 카톨릭 종교로 개신할 때, 이들 견신론자들은 아시아인에게 불교정신의 지혜를 전했으며, 불교정신은 개인의 정신과 마음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물질만능주의 시대의 등불이라고 가르쳤다. 여기에서 세계불교 부흥에 기여한 서양불교도인 헬렌 페트르바 발베스티키(1831-1891)와 헨리 스틸 올코트(1832-1907)에 관하여 지적하고자 한다.

사실 아시아의 위대한 불교학자나, 불교스승들은 서구불교학자들의 제자였다. 인도의 유명한 불교학자인 다마바나 카삼바(1871-1947)는 헨리클락 왜렌의 제자였으며, 일본의 불교전문가인 만주 나지오(1849-1927)는 독일의 막스 밀팔의 제자였다. 이에 아시아 불교에 미친 서구불교의 영향을 단정점을 떠나서 한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물론 아시아의 불교가 서구인들에 의해서 부흥되었음은



▲버지니아 주의 불교행사

좋은 현상일지라도 서구문화의 기본이 되는 기독교에 의해서 불교의 정신이 곡해되었다는 점이다.

다음은 역사적인 미국불교의 분석을 떠나서, 미국불교의 영향과 그 경향에 관하여 설명하기도 한

다. 미국전역에 500개가 넘는 불교학교, 절, 불교회관, 협회 등이 퍼져 있다. 미국의 불교는 대부분 한국, 중국, 일본, 버마, 스리랑카, 인디아, 타이완, 홍콩 등의 전통불교에서 유래되며 또 영국불교, 캐나다불교 등의 서구불교 전통도 미국불교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미국불교의 전통이나 그 종파를 찾음에 스리랑카, 베트남, 서동아시아에서 출발한 테란베를 들 수 있다. 이 테란베 불교도들의 집회를 텍사스, 호놀룰루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의 집회를 살펴보면

1. 베트남 불교회
2. (라오불교 상하)미국
3. 캄보디아 불교절
4. 베트남 불교절
5. 타이 불교절
6. 베트남 불교절

이들 미국불교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다.

“어떠한 것도 영원하지 않음에 모든 것은 순간 순간 변한다.

그 순간성의 사실은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다.”

“한 생명이 태어나고, 다른 생명이 죽고, 또 모든 사람은 늙고 죽는 것이다.”

모든 서구의 심리학자들이 “자아”나 “아집”을 연구함에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이것들을 확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모든 것이 영원성을 소유하지 않다고 가르치는 불교는 인간의 경험 또한 영원성과 확실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 불교도들은 세상의 영원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으며, 그러므로 자아의 인식은 허상이라고 가르친다. 좀더 상세히 설명하면 우리 인간이 자아를 인식함은 우리의 욕망, 욕구 등을 갈구하며 또 이것은 이기심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개인의 허상을 자아라고 믿는 마음의 상태가 모든 인간에게 생의 고통을 준다고 가르친다.

마음이 단지 개인의 인식에 의한 기능으로서 우리들이 인식하는 개인 혹은 자신 등은 단지 변화하는 육체적, 정신적인 힘이나 에너지라고 불교도는 가르친다.

1. 물질 2. 감각 3. 인식 4. 정신작용 5. 의식
이러한 다섯가지 에너지의 변화 작용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자아”로 잘못 인식되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 인식된 자아는 우리에게 집착과 고통을 준다. 사실, 고통이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불가분의 경험으로서 우리는 숨겨거나, 부정하거나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다른 허상 혹은 환상을 믿으려고 노력할 뿐이다. 사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이겨 보거나 막으려는 반복되는 행위를 멈출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불교인의 길이란 우리 인간이 필연적인 이 고통을 이기는 다른 세상을 찾는 것이다.

- 지정(통리원)

총기동의보감

아기는 당신의 성공을 기다리지 않는다 ... 불임의 늪



조선화 원장

〈여성 美 한의원〉

국내에 있는 유명한 외국계 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30대중반의 K씨는 4년 전 직장동료인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여 경제적, 육체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왔다. 하지만 가까운 친구, 직장 동료들의 임신, 출산, 돌잔치 소식을 접할 때면 환하게 웃는 얼굴과는 반대로 마음은 항상 착잡하고 우울하기만 했다. 그 이유는 일류 대졸업, 일류 외국계 회사 입사와 빠른 승진 등 남들이 부러워할만한 외형적 성공을 거두었지만 정작 결혼 생활 4년 동안에 임신, 연이은 두 번의 유산, 두 차례의 시험관 아기 시도는 자존심 강한 그녀에게 크나큰 자괴감을 안겨 주기에 충분했다. 남모르는 고통의 원인제공자는 “불임”이었던 것이다.

불임은 남녀가 결혼 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이미 아기를 낳았더라도 그 후 2년 이상 임신을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요즘 젊은 부부 7쌍 중에 한 쌍이 불임 부부이고, 과도한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환경 호르몬 등 다양한 요인으로 불임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양방에서는 수정, 배란, 착상이라는 임신의 과정 혹은 난자, 정자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불임을 유발시키며 그 원인은 자궁의 이상, 배란장애, 난자, 나팔관의 이상, 자궁경부 점액의 이상, 원인이 없는 기능성 장애에 있다고 보는 반면 한방에서는 그 원인을 첫째, 습담이 많은 비만한 체형에 발생하는 경우 둘째, 생식력의 근원인 신장의 기운이 약해서 발생한 경우 셋째,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기혈이 동쳐서 생기는 경우 넷째, 자궁에 양기가 부족하거나 관리소홀로 자궁을 냉하게 방치해서 생긴 경우 다섯째, 선천적 자궁기형에 의해 발생한 경우 여섯째,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예민한 경우 일곱째, 종양이 있는 경우에 불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불임의 한방적 치료는 반드시 근본을 고쳐야 한다는 원칙 아래 정상적 생리주기와 호르몬 분비를 통해서 여성 생식기의 모체인 자궁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 오장육부의 조화로운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자궁근종, 자궁 내막증 등의 질병이 있을 경우에는 원인이 되는 질병의 적절한 치료가 선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항이 있는데 바로 불임 발생률의 40%를 차지하는 남성 불임이다. 주요 원인은 정신적 스트레스, 과로, 술, 담배 등으로 인해 신장의 기운이 손상을 받아서 나타나는 정액의 이상, 사정시 장애, 발기장애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성 불임의 치료의 근본은 손상된 신장의 기운을 살려주고 오장육부의 불균형을 조화롭게 만들면서 동시에 올바른 식사습관, 잘못된 식습관, 환경 호르몬 등 다양한 요인으로 불임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외에도 마음의 안정과 더불어 따뜻한 부부생활과 사랑은 불임극복의 가장 큰 윤활유가 아닐까 싶다.

죽비소리

부모가 병이 들면 곁을 떠나지 말고 친히 간호할지니라.
주야로 삼복에 귀의하고 부모의 병이 낫기를 축원하며 잠시라도 은혜를 잊어서는 안되느니라.
부모가 완고하여 삼보를 받들지 아니하며, 어질지 못하여 남의 몸을 상하게 하고, 의롭지 못하여 남의 물건을 훔치고, 몸을 단정히 하지 못하고, 신의가 없어 남을 속이며, 지혜가 없어 술에 빠지거나 자식은 그 잘못을 말하여 깨우치게 해야 하느니라.

- 부모은경(父母恩經)

여성 美 한의원



자경단(子經丹)

중양질환
자궁근종
생리질환
불임 자궁내막염

◆ 여성병(부인과) 클리닉

- 월경병: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갱년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 생식기병: 자궁근종, 질염, 냉증, 대하증, 봉루증, 자궁선근증, 요실금...
- 임신병: 불임, 임신오제(임태), 임신중독증 등...
- 산후병: 산후풍, 산후비만, 유산후유증 등...

* 기능성약 요법(자경단, 요실금 등)으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비만 클리닉

- 여성: 자궁 다이어트
- 남성: 복부 다이어트

◆ 가족 클리닉 - 보양, 수험생 등

* 환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 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하였습니다. *

◆ 진료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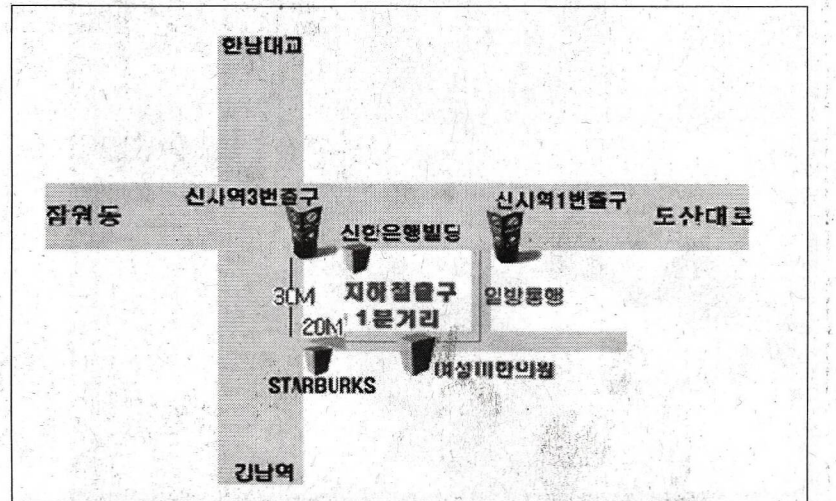
평 일 :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주 말 : 오전 9시30분~오후 4시
점심시간 : 오후 1시~오후 2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KBS “전문의 상담”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온라인 상담 www.women119.co.kr

전화상담 02)545-0072

Fax 02)545-2191

지상설법



원 송

〈통리원장〉

우리는 새해불공이나 월초불공, 자성일 불공동안 새로운 마음으로 보다 나은 삶을 이루기 위해 불공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의지하면서 경제해탈과 병고소멸, 업장소멸을 위해 불공을 합니다. 그러나 불공을 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경제해탈과 병고소멸, 업장소멸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보살님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월초 불공하고 매일 매일 불공하였는데 왜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정진하고 불공했다.”고 인식하는 그 순간 그동안 불공한 공덕은 연기가 되어 저 멀리 사라지게 됩니다. 불공은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향한 지극한 마음

으로, 오로지 일념 정진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매일 매일 쉬지않고 열심히 불공을 해야 하는가? 불공은 ‘나’를 바꾸고 업보중생의 업(業)을 녹이는 원동력이요, 부처님의 대자비와 대지혜속에서 새로운 삶을 여는 원력이며, ‘나’ 속의 영원한 생명력과 무한한 능력을 개발하는 정진이기 때문입니다.

실로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불가사의한 정진과 불공 경험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죽을 목숨을 살린 이야기, 소원을 성취한 이야기, 난치병, 불치병을 고친 이야기, 불공공력으로 경제해탈을 성취한 이야기 등등.....

이 모두가 한 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일념으로 지성껏 정진하고 불공한 결과입니다. 지성을 다해 불공하고 정진하면 반드시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소원이 성취되고,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도 다른 사람의 힘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목숨이 경각에 달린 다급한 상황,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이 죽음앞에 서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자인 우리들은 부처님께 의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불공입니다. 부처님께 매달려 영원한 생명력을 갈구하고, 무한한 능력으로 가피를 내려 줄 것을 간절히 청해야 합니다.

그러한 고통과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불공을 해야 하는가? 정성을 다하는 불공! 그야말로 사력을 다해 불공하고 정진하면 죽을 목숨도 살릴 수 있습니다. ‘죽으면 산다’는 말이 있듯이, 사력을 다해 불공할 때 부처님의 가피와 참 마음자리

의 무한한 능력이 분출되어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한 불공은 타인 업장도 녹여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불공하고 정진하면 나의 업장은 물론 타인의 업장까지 녹일 수 있습니다. 매일 매일 불공하고 정진하면 새로운 자비광명의 빛이 찾아들고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됩니다.

이 세상의 일이란 낮과 밤의 원리와 같습니다. 어둠이 다하면 밝음이 오고, 밝음이 다하면 어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업장이요 밝음은 불공의 가피입니다. 업장이 두터워 뜻과 같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저 하늘에 두루 비추시는 대일여래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께 의지하고 지성으로 불공하고 정진하십시오, 틀림없이 어둠의 업장은 사라지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광명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오로지 ‘나’의 정성에 달려 있습니다. 불공과 정진을 할 때 나의 주변에 있는 존재와 상황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우선 ‘나’를 바꾸는 불공을 해야 합니다.

나의 업장을 소멸하고, 소멸된 업장의 원력으로 남의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업장도 소멸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의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었습니까?

불공과 정진할 때 제일 먼저 내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원망심, 시기, 질투, 이기심을 버리는 업장소멸 불공을 해야 합니다. 나의 업장은 그대로 남겨두고 상대방의 업장소멸과 소원성취 불공을 한 들 무슨 소용이 있었

습니까?

부처님께서서는 우주법계를 두루 살피시며 모든 중생들에게 자비광명의 가피력을 내려주시기 위해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어놓은 인(因)에 의해 반드시 과(果)를 받듯이 내가 선행 인과 업장소멸을 위해 지성으로 불공하면 반드시 소원이 성취됩니다.

그리고 불공과 정진할 때는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비우고 부처님께 온전히 내맡겨야 하지만 불공을 할 때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될까?’, ‘말까?’ 하는 의심이나 다른 것의 유혹에 휩싸여 불공을 하다보면 소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불공정진으로 자유 평화

불공과 정진하면 반드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소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의심이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불공중에는 반드시 유혹과 마장이 있기 마련입니다.

49일 불공을 정해 놓고 불공하다보면 중간 중간에 마장과 번뇌가 들어와 불공을 깨는 일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과 마장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굳은 믿음과 확신뿐입니다. 반드시 49일 불공을 지켜서 소원을 성취해야겠다는 각오로 정성을 다하는 신념으로 불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공과 정진할 때는 삼매에 들어야

합니다. 서원당에서 가만히 앉아 있다보면 온갖 번뇌와 잡념, 의심이 찾아들기 마련입니다. 어떤 때는 자신의 불공 내용을 망각하고 불공 내용과 전혀 다른 일에 관심을 가지며, 헛된 망상을 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불공과 정진은 나와 부처님이 하나가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부처님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식물들과 땅과의 관계와 같이 식물들이 그 자신을 땅에 맡기면, 땅은 그 자신을 식물에 맡깁니다.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부처님께 맡길 때 부처님 역시 자신을 우리에게 맡깁니다.

불공과 정진할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적극적인 발원을 해야 합니다. 요행수를 바라거나 엉뚱한 축원을 하며 불공하지 말고, 맑고 간절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불공하십시오. 이렇게 불공하면 부처님의 사이클이 ‘나’의 사이클과 일치하게 되고 그 불공의 내용에 삼매를 이룰 때 크나큰 부처님의 가피가 ‘나’에게로 다가서게 됩니다.

불공과 정진은 나에게 쌓여있는 다생의 죄업을 녹이는 역할도 합니다. 불공을 통해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을 성숙시키는 최고의 방법이며, 나를 바꾸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고, 두려움이 있거나 진정으로 바라는 바가 있거든 서원당에서 지성으로 불공하고 정진하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불공과 정진을 통해 행복과 자유와 평화를 얻고, 영원한 생명력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옴마니반메후, 옴마니반메후, 옴마니반메후.

◇ 복짓는 사람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많은 대중을 위해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그 자리에는 아니룻다도 있었는데 그는 설법 도중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부처님은 설법이 끝난 뒤 아니룻다를 따로 불러 말씀하셨다.

“아니룻다여, 너는 어째서 집을 나와 도를 배우느냐?”

“생로병사와 근심 걱정 괴로움이 싫어 그것을 버리려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너는 설법을 하고 있는 자리에서 졸고 있으니 어떻게 된 일이냐?”

아니룻다는 곧 자기 허물을 뉘우치고 뉘어 앉아 부처님께 여쭙었다.

“이제부터는 이 몸이 부처님의 한이 있더라도 다시는 부처님 앞에서 졸지 않겠습니다.” 이때부터 아니룻다는 밤에도 자지 않고 뜬 눈으로 계속 정진하다가 마침내 눈병이 나고 말았다. 부처님은 그에게 타이르셨다.

“아니룻다여, 너무 애쓰면 번뇌와 어을리게 된다. 너는 그 중간을 취하도록 하라.”

그러나 아니룻다는 전에 부처님 앞에서 다시는 졸지 않겠다고 맹세한 일을 상기하면서 타이름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아니룻다의 눈병이 날로

심해진 것을 보시고 부처님은 의사 자바키에게 아니룻다를 치료해 주도록 당부하셨다. 아니룻다의 증세를 살펴본 자바키는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아니룻다님이 잠을 좀 자면서 눈을 쓴다면 치료할 수 있었습디만, 통 눈을 붙이려고 하지 않으니 큰 일입니다.”

부처님은 다시 아니룻다를 불러 말씀하셨다.

“아니룻다여, 잠을 좀 자거라. 중생의 육신은 먹지 않으면 죽는 법이다. 눈은 잠으로 먹이를 삼고, 귀는 소리로 먹이를 삼으며, 코는 냄새로, 혀는 맛으로, 몸은 감촉으로, 생각은 현상으로 먹이를 삼는다. 그리고 여래는 열반으로 먹이를 삼는다.”

아니룻다는 부처님께 여쭙었다.

“그러면 열반은 무엇으로 먹이를 삼습니까?”

“열반은 게으르지 않는 것으로 먹이를 삼는다.”

“부처님께서서는 눈을 잠으로 먹이를 삼는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차마 잘 수 없습니다.” 아니룻다의 눈은 마침내 앞을 볼 수 없게 되고 말았다. 그러나 애써 정진한 끝에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었다. 육안을 잃어버린 아니룻다의 일상 생활은 말할 수 없이 불편하였다. 어느 날 해진 옷을 걸기 위해 바늘귀를 꿰려 하였으나 꿰 수가 없었다. 그는 혼자말로 ‘세상에서 복을 지으려는 사람은 나를 위해 바늘귀를 좀

꿰어 주었으면 좋겠네.’라고 하였다.

이때 누군가 그의 손에서 바늘과 실을 받아 해진 옷을 기워 준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부처님인 것을 알고 아니룻다는 깜짝 놀랐다.

“아니, 부처님께서서는 그 위에 또 무슨 복을 지을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룻다여, 이 세상에서 복을 지으려는 사람 중에 나보다 더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여섯 가지 법에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진리의 여율

여섯 가지 법이란, 보시와 교훈과 인욕과 실행과 중생 제도와 더 없는 바른 도를 구함이다.”

아니룻다는 말했다.

“여래의 몸은 진실한 법의 몸이신데 다시 더 무슨 법을 구하려 하십니까? 여래께서는 이미 생사의 바다를 건너셨는데 더 지어아 할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 아니룻다. 네 말과 같다. 중생들이 악의 근본인 몸과 말과 생각의 행을 참으로 안다면 결코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생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쁜 길에 떨어진다. 나는 그들을 위해 복을 지어아

한다. 이 세상의 모든 힘 중에서도 복의 힘은 가장 으뜸이니, 그 복의 힘으로 불도를 성취한다. 그러므로 아니룻다, 너도 이 여섯 가지 법을 얻도록 하라. 비구들은 나와 같이 공부해야 한다.” (증일아람 구품 增一阿含 九品)

◇ 너무 조이거나 늦추지 마라

부처님께서 라자가하의 죽림정사에 계실 때였다. 소오나 비구는 영축산에

서 쉬지 않고 선정을 닦다가 이렇게 생각했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정진하는 성문(부처님의 음성(가르침)을 듣고 정진하는 출가 수행자) 중에 나도 들어간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번뇌를 다하지 못했다. 애를 써도 이루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집에 돌아가 보시를 행하면서 복을 짓는 것이 낫지 않을까?’

부처님은 소오나의 마음을 살펴 아시고 한 비구를 시켜 그를 불러 오도록 하셨다. 부처님은 소오나에게 말씀하셨다.

“소오나여, 너는 세속에 있을 때에 거문고를 잘 타았는지?”

“네 그랬습니다.”

“네가 거문고를 탈 때 만약 그 줄을 너무 조이면 어떻게냐?”

“소리가 잘 나지 않습니다.”

“줄을 너무 늦추었을 때는 어떻게냐?”

“그때도 잘 나지 않습니다. 줄을 너무 늦추거나 조이지 않고 알맞게 잘 고루어야만 맑고 미묘한 소리가 납니다.”

부처님은 소오나를 기특하게 여기면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의 공부도 그와 같다. 정진을 할 때 너무 조급히 하면 들뜨게 되고 너무 느리면 게으르게 된다. 그러므로 알맞게 하여 집착하지도 말고 방일하지도 말라.”

소오나는 이때부터 항상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문고를 타는 비유를 생각하면서 정진하였다. 그는 오래지 않아 번뇌가 다하고 마음의 해탈을 얻어 아라한이 되었다. 소오나는 아라한이 되어 마음으로 해탈한 기쁨을 지니고 부처님을 찾아가 보았다.

“부처님, 저는 부처님의 법 안에서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모든 번뇌를 다하고, 할 일을 이미 마쳤으며 무거운 짐을 버렸습니다. 또 바른 지혜로써 욕심을 떠난 해탈, 성냄을 떠난 해탈, 멀리 벗어난 해탈, 애욕이 다한 해탈, 모든 취로부터의

해탈, 늘 생각하여 잊지 않는 해탈 등 여섯 가지 해탈을 얻었습니다. 부처님, 만약 조그마한 신심으로 욕심을 떠나 해탈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다한 것을 참으로 욕심을 떠난 해탈이라고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사소한 계율을 지키는 것으로써 자기는 성냄에서 해탈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옳지 못합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다한 것을 참으로 멀리 벗어난 해탈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다한 것을 가리켜 애욕이 다한 해탈, 모든 취(取)로부터의 해탈, 생각하여 잊지 않는 해탈이라고 합니다.”

존자 소오나가 이 법을 말하였을 때 부처님은 기뻐하셨고 수행자들도 한결 같이 환희에 젖었다. 소오나가 그 곳을 떠나자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잘 해탈한 사람은 마땅히 그와 같이 말해야 한다. 소오나는 지혜로써 말하였다. 그는 스스로를 추켜세우지도 않고 남을 낮추지도 않고 그 이치를 바로 말하였다.”

[잡이람 이십억이경 雜阿含 二十億耳經]

총지중 정각사 바라밀 지역아동센터

바라밀 공부방은 자라나는 아동들을 정성껏 보살피고, 학습, 교육하는 것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현하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이용대상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아동, 결손아동, 생활보호대상자 아동, 차상위 아동

프로그램

학습활동 : 국어, 수학, 영어, 한문
신체활동 : 요가, 태권도
문화활동 : 영화보기, 미디어영상
특별활동 : 컴퓨터, 미술수업
급식제공 : 일일1회석식제공,간식제공
홈페이지 : happylog.naver.com/baramil.do

※ 바라밀 지역아동센터 자원봉사자 수시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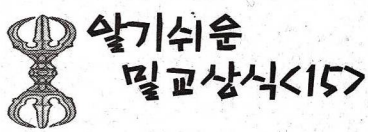
바라밀 아동들의 학습지도 및 컴퓨터 지도를 해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1회~2회 2시간정도 봉사해 주실 뜻있는 분을 기다립니다.

※ 후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바라밀 아동들의 문화프로그램 신장을 위한 후원을 해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기업은행 094-059285-04-046

예금주 : 바라밀지역아동센터



육대체대(六大體大)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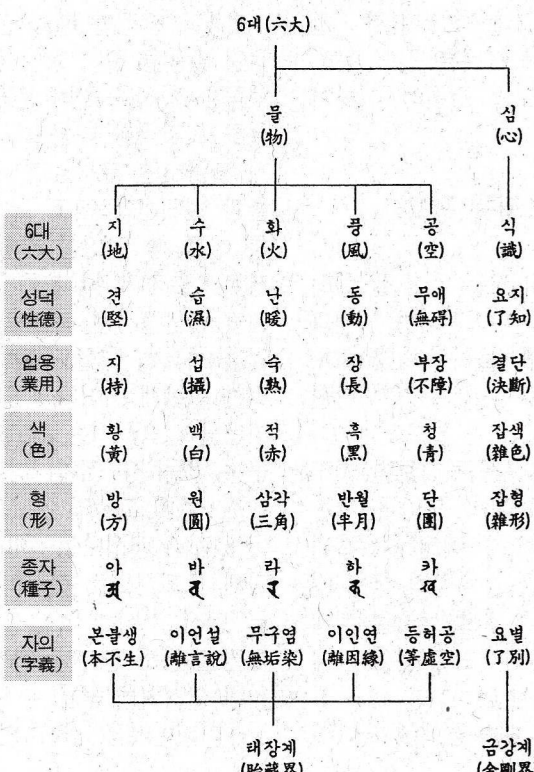
밀교의 우주관

육대는 이처럼 인간의 구성요소일 뿐 아니라 온 우주는 이 육대를 벗어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인간과 우주의 모든 활동은 대일여래의 불덕이 드러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밀교에서는 이처럼 육대에 하나하나의 상징성을 부여하여 수행의 방편으로 삼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륜성신관(五輪成身觀), 오자엄신관(五字嚴身觀) 혹은 오륜탑관(五輪塔觀)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일경》의 〈비밀만다라품〉에 근거한 것으로 수행자가 수행중에 자기의 신체를 지·수·화·풍·공의 오대로 나누고 여기에 오대의 바탕이 되는 식대를 더하여 대일여래를 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육대에는 법이(法爾)와 수연(隨緣)의 구별이 있다. 법이는 본래의 실성(實性)을 말하는 것으로 지·수·화·풍·공·식의 원래의 성질을 가리킨다. 지의 단단함, 수의 습기, 화의 따뜻함, 풍의 움직임, 공의 결립 없는 성질, 식의 차별작용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을 흔히 지·수·화·풍·공·식에 각기 견(堅)·습(濕)·난(暖)·동(動)·무애(無碍)·요별(了別)의 성질이 있다고 한다. 수연은 이러한 성질의 겉으로 드러난 모

육대는 일체에 모두 구비되어 있는 본성으로서 어느 것에도 육대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지·수·화·풍·공·식의 육대의 각 대(大)는 서로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을 상즉원융(相即圓融)이라고 한다. 상즉원융하기 때문에 서로가 결립이 없으며 이를 무애(無碍)라고 한다. 밀교의 계승에서 ‘육대무애상유가(六大無碍相瑜伽)’라는 말이 바로 이것이다.

무애에도 동류무애(同類無碍)와 이류무애(異類無碍)가 있다. 우선 이류무애라는 것은 육대의 성질이 서로 다를 지라도 육대의 하나하나에는 다른 오대가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대에는 수대를 비롯한 다른 오대가 갖추어져 있고 수대에도 지대를 비롯한 나머지 오대가 갖추어져 있어 결립이 없는 무애의 일체를 이루는 것이다. 이것은 물질 불이의 이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육대의 구성과 상징〉



물 밖에 심이 없고 심 밖에 물이 없다는 이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로서 주로 보면 우주는 물질적 실체가 되고 심으로 서 주로하면 우주는 유심(唯心)적 실체가 된다.

다음으로 동류무애라는 것은 육대끼리 서로 바라보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대일여래의 지대와 중생의

법이(法爾)와 수연(隨緣)의 육대

육대는 물질적인 것과 마음의 활동을 상징

습과 작용이며 이것을 밀교에서는 각각 방(方:사각형), 원(圓), 삼각(三角), 반월(半月), 단형(團形), 원만월(圓滿月:둥근 달) 등의 형색(形色)으로 상징하며 황·백·적·흑·청·잡색의 현색(顯色)으로도 상징한다. 즉, 우리가 보는 산하, 대지 등이 수연의 육대라면 그것을 이루고 있는 요소는 법이의 육대가 된다.

육대 가운데의 지·수·화·풍·공의 오대는 물질계이며 마지막의 식대는 정신계임은 말할 것도 없다. 즉 앞의 오대가 색이라면 뒤의 식대는 심인 것이다. 이 둘을 현교에서는 마음이 근본이고 물질은 지말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밀교에서는 색심불이(色心不二)라고 한다. 즉 심과 색은 어느 것이 먼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심과 색은 떨어질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지대가 섭입(涉入)하고 불(佛)의 식대와 중생의 식대가 서로 섭입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부처 없는 중생이 없고 중생 없는 부처가 있을 수 없다는 말과도 같다.

이러한 원리에 의하여 밀교에서는 대일여래의 육대와 중생의 육대가 무애하게 섭입할 수 있으므로 즉신성불이 가능한 것이다. 단지 성립의 인연에 의하여 깨달음과 미혹, 더러움과 깨끗함의 차별이 있을 뿐 근본은 일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대로 부처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육대가 서로 모이고 흩어지는 작용에 의하여 만법이 일어나는 것을 가리켜 육대연기라고 하며 밀교에서는 아자체대설과 더불어 육대체대설을 내세워 그 교리적 근거로 삼고 있다.

-회령(중앙교육원장/철학박사)

“부처님의 법으로 만난 인연...”

- 『김군에게 들려준 0의 행복』의 저자 이규항 씨



이규항 아나운서

전 KBS 아나운서로 35년간 방송 생활을 하고 은퇴한 이규항 씨가 천주교 신자이면서도 불교에 심취하여 불교 관련 책을 내놓았다.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찾아가 보았다.

▶ 『김군에게 들려준...』의 책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주시다면?

- 붓다의 깨달음의 모체는 0입니다. 이 0은 곧 제행무상, 제법무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0을 '있음의 없음'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없는 듯 있는 없음의 있음, 저는 이를 진공묘유의 중도(中道)요선(禪)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입멸하실때까지 인류의 생활철학으로 제시하고 싶었던 중도의 깨달음을 말씀으로 남기지 못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 무설선(無說禪), 불립문자, 언어도단 같은 말이 나오게 되었구요. 저는 2500여년 동안 수수께끼로 내려오고 있는 붓다의 '속마음, 잠재의식의 깨달음'을 '밤맛'과 '수학의 0'을 키워드로 풀어보았습니다.

▶ 천주교 신자이신데 어떻게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되었나요?

- 석성우스님(전 대구 파계사 주지, 현 불교TV 회장)께서 염불(念佛)의 '염(念)'자를 파자하면 '지금 마음이 부처'라고 하였고, 합장은 '원손의 본래마음, 처음 마음'에 '지금 마음, 속세마음'을 합일시키는 것이라는 가르침에 큰 감을 받았고, 그래서 '염(念)'이 저에게 불교를 깨닫게 하는 일자관(一字觀)의 인연이 되었습니다.

▶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 제가 KBS 아나운서로 출발한 해가 1961년으로 군사독재가 시작되던 해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의 아나운서들은 젊음의 낭만과 각기의 술과 사회부조리에 대한 저항과 울분의 술을 마시기도 하여 마치 음주가 저녁생활을 차지하다시피 했습니다. 저는 술이 강한 편이었으나 황소가 호박냉물에 쓰러지듯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경

(死境)을 해마다가 회복기에 들 무렵 이상 아픈 영감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즉 “마음자리가 플러스에 있을때는 즐겁고 마이너스에 있을때는 괴롭다. 그런데 지금 병상 침대에서 느끼는 이 행복은 음주시절 마음자리가 플러스에 있을 때 맛보았던 그런 행복감이 아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마음자리가 플러스가 아닌 '0'에 있어도 행복하다면 '0의 행복'이 아닌가? 붓다께서도 제1세계의 태자시절(+)과 제2세계의 고행수도(-)의 양극단의 시절이 있었기에 중도(中道), 선(禪)이라는 제3의 신세계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 붓다! 인생을 발견한 콜럼버스타!” 이렇게 중얼거리는 소리에 회진하던 의사와 간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오다 듣고 깜짝 놀라며 회복기 환자의 후유증으로 보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책을 쓰게 된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 총지종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까?

- 제가 한창 '0'으로 온 생각에 빠져 있을때 동그라미의 수인(手印)이 매우 궁금했습니다. 구상(球相)을 법신불로 모시는 총지종에 문의하면 해답이 나올것하여 전화를 했는데 마침 법경 정사님과 인

연이 되어 중요한 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만다라를 알게 되었고 '모든 것을 지니고 있다'는 총지종의 종명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인연과 은혜로 불교에 한발/자국 이상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지종 종조원정 대성사 탄신 100주년 기념 CD 제작에 제가 남송의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 총지종 등 진언수행 불교종단의 미래가 밝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을 들 수 있을까요?

- 현대인들은 단순하고 확실하고 구체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뜻에서 법신불의 구상(球相)은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또한 신밀(身密)은 붓다의 깨달음의 모체로 어느 종파에서도 접근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총지종이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종단이라 앞날이 밝다고 봅니다.

▶ 이 책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 본격적인 홍보가 안되었는데도 입소문으로 뜻밖의 큰 반향이 일고 있습니다. 범어사 무비 콘스님, 총주 석종사 해국 콘스님께서 격려의 편지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밖에 문화 평론하는 분들께서도 앞으로 불교문화와 수필문화에 고전으로 남을 만한 책이라고 과분한 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30대 전후의 젊은 아나운서 지망자들이 재미있게 읽었다고 했을 때가 무엇보다 기뻐했습니다.

불교설화 <24>

심장법사와 손오공

손오공이 8만 4천 번뇌망상을 일으키고 천하를 문란하게 한 죄로 인해 스스로 오음산의 굴 속에 갇혀 꼼짝없이 고통을 받은 지도 어언5백년. 그 때 당나라 태종(太宗)은 현장법사(玄奘法師:602~664)에게 천축국(天竺國)으로 가서 불경을 구하여 오도록 명하셨습니다. 현장법사가 그 멀고 험한 길을 혼자 갈 수 있을까 염려하여 관세음보살님께 도움을 청하자, 관세음보살은 인연(因緣)이 무르익었으니 곧 길을 떠날 것을 재촉하셨습니다.

“가거라. 아무런 걱정말고 가거라. 저 유사(流沙:모래가 흘러가는 사막)를 지나가면 오음산이 나타나고, 그 산의 꼭대기에는 관세음보살의 본심미묘진언(本心微妙眞言)인 ‘옴마니반메훴’ 여섯 글자를 쓴 말뚝이 박혀 있을 것이다. 그 말뚝을 뽑으면 오음산이 터지면서 원숭이 한 마리가 나오리라. 그놈은 기운이 천하장사인 돌원숭이 손오공이다. 손오공의 머리를 꺾어 제자로 삼아서 데리고 간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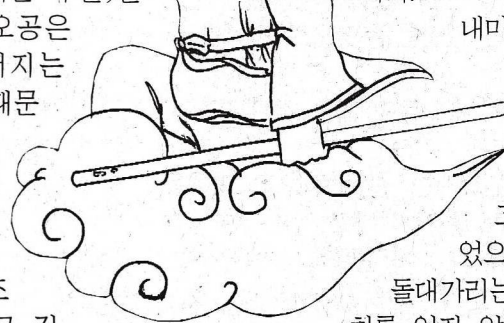
그렇지만 손오공은 성질이 팔팔하고 버릇이 없어서 역지를 부릴 때가 많을 것이니, 제자로 삼는 즉시 머리에 이 둥근 금테고리를 씌워라. 역지를 부릴 때 내가 일러주는 긴고주(緊絀紐:머리에 쓴 고리를 조이게 하는 주문)를 외우면, 손오공은 머리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 때문에 말을 듣지 않을 것이 없다.

떠나라. 조금도 염려 말고 길을 떠나라.”

현장법사는 천축국을 향해 길을 떠났고, 과연 관세음보살의 말씀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손오공을 오음산의 감옥에서 구하여 함께 나아가는데, 갑자기 여섯 명

의 도둑이 나타났습니다. 현장법사는 놀라 자리를 피하고, 손오공 혼자서 도둑들과 마주 서게 되었습니다.

“이 놈, 가진 것을 모두 놓고 가거라.”
“못 주겠다면 어쩔 것이냐?”
“네 놈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겠다.”
“그래? 어디 깨뜨려 보아라.”



내미는 손오공의 머리를 여섯 도둑이 칼로 내리치고 도끼로 찍었으나, 손오공의 두대가리는 조금도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다. 제

풀에 나가 떨어진 도둑들을 향해 손오공은 ‘이제 내가 때릴 차례’라고 하면서 여섯 도둑들의 머리를 여의봉으로 후려치자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현장법사가 돌아와 보니 사람이 여섯이나 죽어 있지

않은가.

“오공아! 불법이 대자대비(大慈大悲)인 줄을 모르느냐? 불법의 제1계(第一戒)가 불살생(不殺生)인 줄을 모르느냐? 사람을 때려 죽이니.”

“하, 조금 전에는 겁이 나서 똥줄이 빠져라 도망을 가더니, 이제 나타나서 잔소리를 해요?”

“오공아, 여섯 도둑놈(六賊:곧 육대)을 돌이키면 육신통(六神通)을 만들 수 있고, 여섯 가지 인식(六識)을 돌이키면 육바라밀(六波羅蜜)을 이룰 수가 있다. 번뇌망상을 떠나서 따로 진리를 구하려는 것은 파도를 떠나서 물을 구하려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나 손오공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깨떡깨떡 몸을 흔들며 생트집만 부렸습니다. 현장법사는 이와 같이 그릇된 행동을 하고도 누워 있을 줄 모를 때 긴고주를 외워 손오공의 버릇을 고치곤 하였습

니다. 현장법사는 설법을 통하여, 그리고 긴고주로 손오공을 깨우쳐 88사(使:번뇌의 다른 이름)의 번뇌망상을 모두 조복(調伏)시키므로써 마침내 바라밀의 세계인 천축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 심일화

<불교, 교양으로 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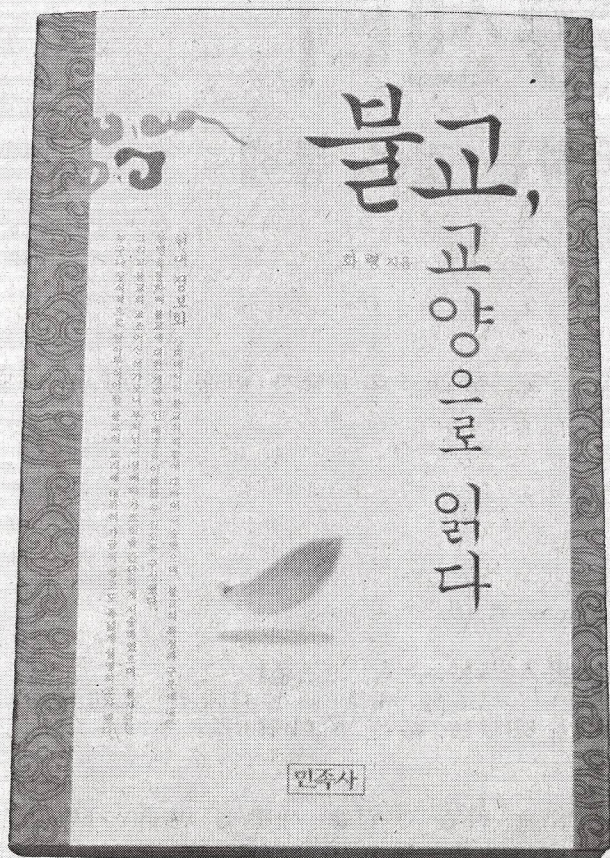
화령(불교총지종 중앙교육원장/ 철학박사) 지음 / 민족사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불교의 역할에 대해 서술한 이 책은 불교의 특징과 구분에 대한 설명

을 통해 불교에 대한 개략적인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울러 불교의 교조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간략히 서술하고 불자라면 알아

두어야 할 불교 교리에 대해 쉽고 폭넓게 설명했다.



< 기획특집/불교 상장례① >

불교 임종의례의 중요성

유재철

(연화회 대표/동국대 불교대학원
생사이레학과 외래교수)

불교 상제례와 관련한 폭넓은 연구가 교계 여러 종단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조계종·대교종·천태종·진각종 등 기존 신도 계층별 포교에 한계점이 있다는 것에 공통된 인식을 갖고 생활포교로 전환을 하기위한 구심점으로 '불교 상장례'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연구돼 온 불교 상제례가 폭넓은 생활포교의 저변을 다지기 위해서는 임종의례(의식)를 새롭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죽음의 순간은 죽음을 맞이하는 임종자는 물론 임종자를 떠나보내는 유가족에게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첫 번째로 다룰 임종 맞이에 대해 그 용어를 '임종의례'로 통일화시켜 기술하고자 한다. 이와 아울러 본고에서 4회에 걸쳐 임종의례와 상례·제례, 상장례 염불봉사자 교육 및 조직관리 등을 다루고자 한다. 그 첫 회로 불교 임종의례를 다룬다.

다만, 임종의례와 의식 부분이 총지종 밀교의식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염려되기도 한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그 죽음이 어떠한 형태로 다가오든 임종자에게는 삶의 질과 양이 결정되는 순간이고 유가족에게는 남은 평생에 정서적,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순간이다. 과학은 무기력하고 이성만 마비된다. 격정과 혼돈이 지배하는 순간이다. 이러한 순간을 우리 전통 사회는 상당부분 의례, 특히 종교의례를 통해 극복했다. 의례는 임종자를 편안하게 이승과 분리시켜 저승에 통합시켰음은 물론 유가족의 격정과 혼란을 자연스럽게 도약시켰다. 전통상례는 임종순간을 포괄했

다. 설령 상례가 임종 순간에 대한 고려가 미약했다하더라도 우리 선조들은 낡아서 죽을 때까지의 다양한 개인적, 사회적 의례 등을 통해 임종순간을 맞고 극복하는 전략들을 체득하고 있었다. 죽는 자와 산자가 의례를 통해 교감하고 죽음이 주는 물리적, 현실적 단절을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었던 것이다.

현대 사회의 죽음에 대한 관심은 이러한 의례에 대한 욕구의 한 발로이다. 전통적 죽음의례의 부재가 낳은 결핍의 표출이다.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종교는 이러한 현대인의 결핍과 그에 따른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가장 근거리에 있는 공동체이다. 특히 불교는 그 교리나 전통상 죽음을 다루고 위무하는 데 가장 완벽한 체계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종교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수용하고 여기서 파생된 아픔을 치유하고 위무하는 '치유 공동체(healing community)'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고(生死不二) 죽음을 생각함으로써(念死) 죽음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불교적 가르침(不生不死·生死一如·生死即涅槃)을 대중화해야 한다.

1) 불교 임종의례의 주체와 대상

불교임종의례를 구체적으로 누가 어떠한 범주의 대상에 행하는 행위로 정의하여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여기서 주체라 함은 불교임종의례를 집전, 집례하는 자를 말하

종자나 가족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이어야 한다. 즉 생전의 상호관계에 기반 라포(rapport)가 바탕이 되어야 법계(法界)로의 천도가 가능하다. 또한 임종의례는 죽음을 목전에 둔 임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초연하게 관조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동시에 격정(激情)의 분위기를 통제하고 가족의 슬픔을 케어(care)



임종체험으로 수의를 입고 입관 전 의식을 집전하는 모습.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식견도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집례는 스님과 법사, 호스피스, 간병인 등이 팀을 이루어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 팀은 2내지 4인 정도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하면 불교임종의례의 집례는 임종자나 가족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경험 있는 스님이나 자격 있는 법사, 불자가 하는 것이 바람

특히 임종자가 가족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기회를 차단할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가족은 임종의례의 대상이자 주체(집례자)이기도 하다. 다만 임종자와 가족을 임종의례에 동시에 참여시킬 것인가 아니면 의례의 전개에 따라 분리하여 참여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마지막으로 임종의례를 언제 어디서 하는가이다. 대부분은 병원이나 집에서 임종을 맞

는다. 미국의 너싱 홈(Nursing home)이나 인도의 바라나시처럼 임종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있는 문화권도 있지만 대부분의 현대인이 임종을 맞는 곳은 병원이나 집이다. 따라서 임종의례의 공간 역시 집이나 병원, 또는 임종 직후 장례식장이다.

임종의례의 시간적 범주를 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통상 임종이라 함은 죽음이 임박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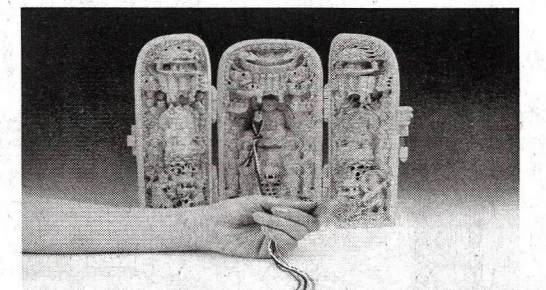
의학적 징후가 나타날 때부터 사망이라는 법의학적 판단이 선언되기까지이다. 그러나 임종의례의 시간적 범위를 법의학적, 의과학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임종의례는 죽음 불안, 공포를 케어하고 임종자를 법계로 인도하며 가족을 케어하는 심리적, 종교적, 영적의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종의례의 시기(始期)는 임종자나 가족이 임종을 인지

를 만나며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는 경험을 한다고 한다. 한편, 의학적 사망이 선언되면 시다림이라는 또 다른 죽음의례가 본격 개시된다. 따라서 개념적으로 시다림, 즉 상례와의 구분이라는 개념적 차원에서 임종의례의 종기(終期)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임종의례의 시기는 임종자 또는 가족이 임종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임종 후 입관 전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임종의례가 상례(시다림)와 가장 다른 점은 임종의례는 개념적으로 산 자, 즉 임종자를 그 주된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산자의 입장에서 볼 때, 본인이 의식하든 못하든 의식(의식)의 제8식이나 임종중음이 활동하는 시기까지 스님이나 전문가에 의해 안내되고 인도된다고 생각하면 보다 편안하게 죽음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종의례의 횡수에 관한 것이다. 임종의례의 목적이나 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임종의례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임종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임종자나 가족이 수시로 집례자를 초빙해 임종의례를 할 수 있다. 천주교의 종부성사가 일회적인 것임에 반해 불교 임종의례는 다다익선이라 할 수 있



아마타 삼존불감에 오색실을 건 모습. 망자가 천도된다는 의미가 있다.

을 것이다.

이와 같이 '불교 임종의례'를 몇 가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종의례는 임종자가 대상임은 물론 임종 가족도 그 주된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즉 임종의례는 의례를 통하여 임종자가 죽음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받아들여지게 하여 법계로 인도함은 물론 이거니와 유가족이 느끼는 슬픔, 단절감, 불안을 케어하고 위무하며 고인의 극락왕생을 믿고 다음 의례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불교 임종의례란 임종자를 이승과 분리시켜 저승으로 통합시키고 동시에 상례라는 전체 죽음의례로 통합시키는 통과의례적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임종의례의 주체는 의례에 대한 식견만이 아니라 임종심리, 법계로의 인도 능력, 슬픔의 케어하고 치유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삶과 죽음 다르지 않다는 불교 가르침 대중화 해야”**임종자와 가족, 주변환경 통제-진행하는 의례**

며 범주라 함은 임종의례의 대상, 즉 인적 범위와 시간적,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불교 임종의례를 주재하는 자, 즉 집례하는 주체는 스님이다. 또한 임종의례의 집례자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의 문제는 앞서의 고려 외에 추가로 몇 가지를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임종자나 가족과의 친밀함의 유무이고 또 하나는 집례자가 임종자를 천도하고 유가족의 슬픔을 케어하며 극적인 분위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임종의례는 임종자가 평화롭고 안락하게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가족이 편안하게 고인을 영별할 수 있도록 임종자와 가족, 그리고 주변환경을 통제하여 진행되는 살아생전의 최후의례이다. 따라서 집례자는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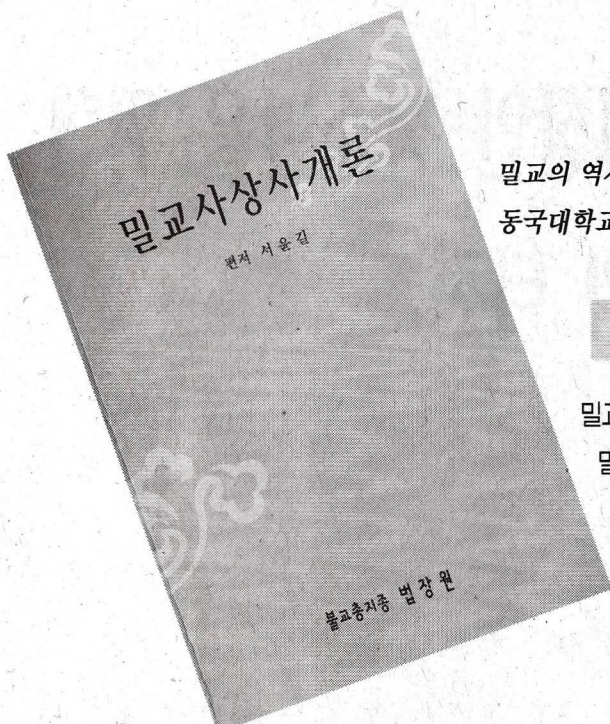
직하다. 스님도 의례, 특히 임종의례에 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 법사나 불자는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범불교계 차원에서 이에 대한 교육, 자격인증 등에 대한 제도마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임종의례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가족이 임종의례의 대상이나 하는 것이다. 임종의례는 본디 임종자를 법계(法界)로 인도하는 의식이다. 그러나 임종이라는 상황을 현실적으로 가족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는 없다. 인류문화의 보편적 전통 중의 하나가 바로 임종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은 임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의 유교적 전통은 가족이 임종을 지키지 않으면 대단한 불효가 된다.

하는 순간부터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인지라 함은 물리적, 의과학적 사실과 증상에 기반 이성적 인지가 아니라 '자신'이, 또는 가족이 죽을 것 같다'는 경험적 판단이나 감각적 판단을 말한다.(천주교 종부성사도 통상 임종 전 임종자가 의식이 있을 때 행한다)

다만, 임종의례의 종기를 언제까지로 볼 것인가는 임종과정에 대한 불교적 해석과 임종 다음 의례인 시다림과 연계해 판단해 볼 필요는 있다.

따라서 불교 임종은 생물학적, 의학적 죽음 그 이후의 상당 시간까지 연장된다. 이는 많은 임사체험자들의 경험과도 일치한다. 임사체험자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단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임을 경험한다. 그들은 자기의 육신을 허공에서 내려다보고 빛의 존재

『밀교사상사개론』

밀교의 역사와 교리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 개론서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서윤길 교수 외 7명의 밀교학자가 공동 집필...

주요내용

밀교란 무엇인가/밀교의 기원과 형성/밀교의 성립과 전개/
밀교의 사상과 그 교학적 배경/밀교의 수행과 실천/한국의 밀교/
부록: 한국현대밀교와 원정대성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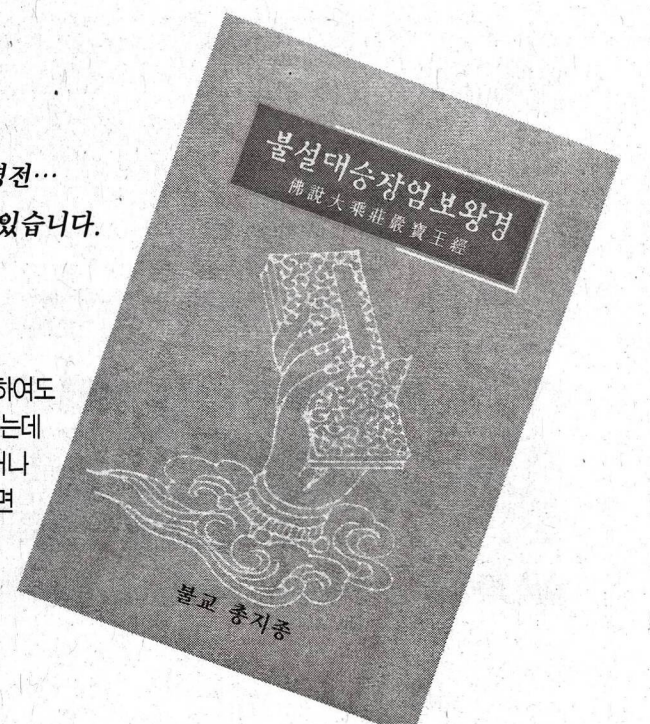
국판/437페이지/정가 15,000원

**『불설대승장엄보왕경』
(佛說大乘莊嚴寶王經)**

유자대명다라니 <옴마니반메훔>의 유래와 공덕을 설한 경전...
이 경을 지니기만 하여도 무량한 복덕과 안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정들이 오직 이 경의 이름만 생각하여도
이러한 이익과 안락을 얻는데
만약 누군가 이 경을 듣고 베껴쓰거나 수지하거나
독송하거나 공양하고 공경하면
그 사람은 항상 안락을 얻을 것이니라.”
---본문 중에서---

변형 국판/130페이지/정가 7,000원

**불교 총지종 법장원**

Tel: (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공립학교·구청·청와대까지 불교박해 “경악”

정보 땅에 묻고, 구청돈으로 전도사 양성, 편종인사에 특별기도회까지



◇대형교회 전도사로 구성된 송파구청 멘토링 봉사단

불교를 박해하고 음해하는 일들이 경악스러울 정도로 벌어지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알고가’, 경기여고, 송파구청, 경찰청, 대법관 그리고 청와대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사태들은 단순히 종교편향 차원을 넘어선 해탈 행위로 불교계 전체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 특히 일련의 기관들은 공립학교, 구청, 정부, 청와대에 이르기까지 ‘공적 영역’이라는 점에서 장로인 이명박 정부와 ‘종교적 코드’를 일치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점에서 우려가 깊다.

‘알고가’? 사찰을 어떻게 알고가? 국토해양부가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대중교통이용정보시스템 ‘알고가’(www.algoga.go.kr)에 사찰 정보가 고스란히 누락돼 고의성이 있다는 의혹을 사고있다.

‘알고가’ 사이트 내 ‘지도찾기’를 통해 서울시내 지도를 검색해보면, 조

계사나 봉은사, 도선사 등 유명 사찰이 나와 있지 않다. 수만평에 달하는 봉은사나 조계종 총본산인 조계사 등 모든 사찰 정보가 지도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교회나 성당의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공립학교인 경기여고 주영기 교장은 불교성보를 땅에 묻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여고와 불교신문 등에 따르면 개신교 신자인 주 교장은 지난 5월 25일 학교 공원화사업을 진행하면서 교정에 있던 석탑과 석등을 해체하고, 불교계 최초 병원인 불교제중원(佛敎濟衆院) 표지석과 함께 땅에 묻었다.

교사들이 반발하자, 주 교장은 지난 4일 성보를 다시 꺼내고 11일 교사들에게 사과했다. 성보를 해체하던 중에 석등의 다리가 파손됐다. ‘불교제중원’ 표지석은 화단 한 편에 천을 덮어둔 채 방치돼 있고, 석탑과 석등은 상자에 담아 학교 방송실 창고에 보관

중이다. 결국 주교장의 사과가 형식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측은 이 과정에서 문화재청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전혀 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교성보이자 문화재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것이다.

송파구청(구청장 김영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저소득층 기살라’는 교육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대학생 멘토링 봉사단을 구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를 연결해 학습에 도움을 주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대형교회 위주로 대학생들을 선발했다는 점이다. 송파구의 멘토링은 멘토(대학생, 외고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자녀인 멘티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학습지도 및 정서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달리말하면 대형교회에서 모집된 멘토들은 일종의 ‘전도사’인 셈이다.



◇종교 학계 시민단체 지도자들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호소하며 쌀독 퍼포먼스를 했다.

南정부 대북식량 신속 지원해야

법륜 스님 등 각계 지도자 35명 긴급호소문

법륜 스님 등 종교·학계·시민단체 지도자 35명은 24일 북한의 식량난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가 예년 수준으로라도 신속하게 식량을 지원하기를 촉구한다”며 긴급호소문을 발표했다.

민간연구기관인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 등은 호소문에서 “지금 북한에서는 식량 부족으로 인구의 절반 정

도가 기아로 고통받고 있으며, 농민과 도시민, 그리고 고아원, 양로원, 꽃재미 보호소 등의 취약계층에서 아사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소문은 “아사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남과 북의 당국자들은 북한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려 애쓰기보다는 북쪽은 남쪽을 비난하고, 남쪽은 북쪽을 외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북한 정부도 조건없이 식량을 받고, 최우선으로 취약계층에게 식량이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소문 발표에는 법륜 스님, 수경 스님,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 등 불교계 인사들 비롯해 김명혁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손봉호 동덕여대 총장, 양승규 세종대학교 총장, 윤여준 전 국회의원, 이선종 원불교 서울교구장, 이운구 결핵제로운동본부 총재, 인명진 갑철리교회 담임목사, 인병선 조물생생사박물관 관장, 한정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총무신부, 황상근 인천교구제물포천주교회 주임신부 등이 참여했다.

청와대불자회장에

강윤구 사회정책수석 내정



청와대불자회장 강윤구

이명박 정부들어 두번째 청와대불자회장에 강윤구 신임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이 내정됐다.

강윤구 수석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광주고와 고려대 철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16회로 1974년 공직에 입문한 뒤, 보건복지부에서 가정복지와 보험정책과장, 연금보험국장과 보건복지부 차관 등을 거치면서 복지 관련 통로로 정평이 나있으며 퇴임 후에는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로 재임했다. 강윤구 신임 청불회장은 “불교사회복지 활동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불교사회복지연구소 연구지원위원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사직을 사임했다”며 불교복지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간호사관생도 ‘불자되던 날’

세상이 중생을 두루살피는 관세음보살되길



◇간호사관학교 호국약천사에서 열린 수계법회.

과 기간병 70여명이 참석해 수계, 불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서원했다.

군종교구장 일면스님은 법회에 참석한 생도들을 위로하고 호국약천사에 지원금을 전달했다. 일면스님은 “장차 간호장교가 되어 병사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손길이어말로 세상의 중생을 두루 살피는 관세음보살”이라며 군생활에서 불교를 실천하는 불자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일면스님)는 24일 간호사관학교 호국약천사에서 사관생도와 기간장병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생도 30여명과

절, 청소년 집중력·심리 치료에 효과

장인진 사회복지사, 14일 파라마타세미나서 주장

“절을 통한 호흡명상이 청소년의 집중력 향상시키고 정서장애 치료에 효과적이다.”

파라마타청소년문화연구소가 6월 14일 ‘명상기법’을 통한 청소년 지도’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나란타 대안학교 장인진 사회복지사는 “나란타 대안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6주간 올바른 자세의 108배를 통한 호흡명상을 진행하면서 실험학생들의 참가 전후의 정서 상태가 호전됐고 집중력도 향상

됐다”고 주장했다.

장 사회복지사는 “6주간의 108배를 통한 호흡명상을 진행하기에 앞서 14명의 학생 중 4명의 학생에게서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증상이 나타났고, 이들 4명의 학생들은 다른 학생보다 집중력이 현저히 낮은 상태였고, 이들 모두 충동적이며 자기 절제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팔공산 갯바위에 케이블카 설치

대구시, 불거리 확충 등 관광정책 발표



◇팔공산 갯바위

대구시는 동아시아 관광객 유치에 위해 갯바위 케이블카 설치를 포함한 관광정책(사업비 432억원)을 23일 발표했다.

대구시는 불거리 확충과 여행편의 제공,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확대, 관광마케팅 조직강화 등을 역점시책으로 선정했다. 대구시는 불거리 확충 방안으로 팔공산 아래 주차장에서 걸어서 40분 거리인 갯바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민자유치로 케이블카를 설치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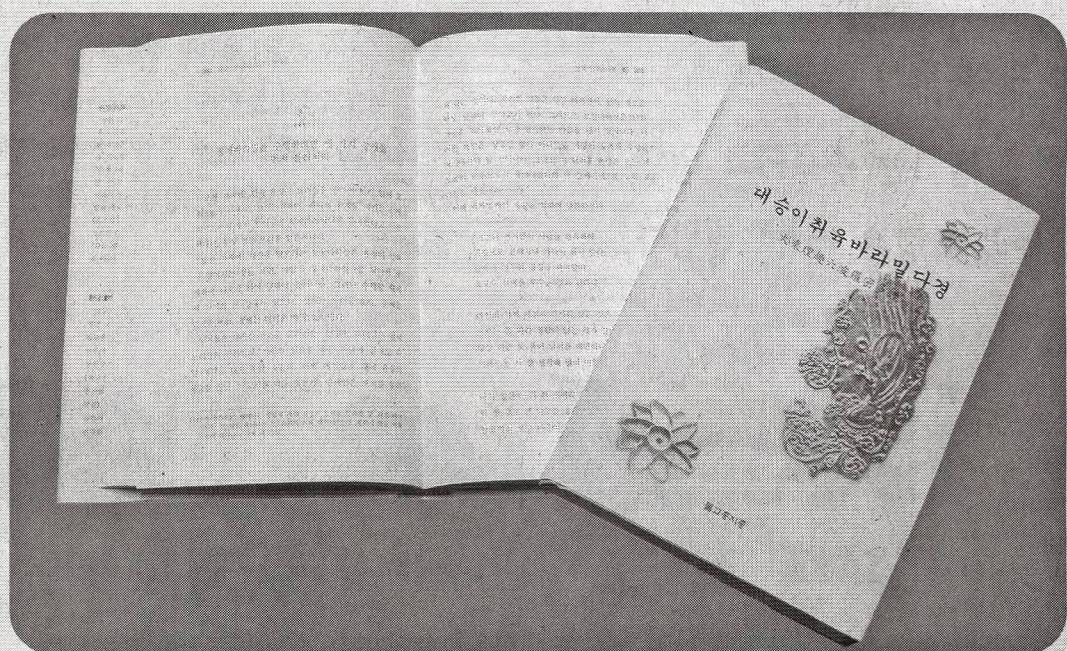
불교문화권인 동아시아 관광객을 집중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약령시에 한방웰빙체험관을 조성해 한방자원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팔공산에 ‘국제 선(禪)문화 센터’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일본인 역사탐방 투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달성군 녹동서원에 ‘한일 우호관’을 건립키로 했다.

녹동서원은 임진왜란때 조선을 침공했다가 귀화한 일본 장수 김충선 선생이 정유,병자,이괄의 난에 전공을 세운 점을 기리는 서원이며, 한일간 친선우호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2011년에 세계 3대 테너가 수를 초청하는 국제 메가이벤트를 추진한다. 또 숙박료 인하 업체에 대한 재산세 50%와 상하수도료 20% 감면을 비롯해 외국인 전문음식점 개설 등을 추진한다.

“대구세계육상대회와 2011 대구 방문의 해를 앞두고 일본·중국·동남아의 관광시장을 적극 공략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대승불교의 실천덕목인 육바라밀을 설한 경전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은

반야사상에 기초하여 대승보살이 닦아야 할

여섯가지 바라밀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실천하여 궁극적 지혜를 얻음으로써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주는 총지종의 소의경전입니다.

불 교 총 지 종 법 장 원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 02)552-1080



생활상식

◀아이스 커피를 맛있게 만들려면

보통 찬 물이나 미지근한 물에 인스턴트 커피를 녹여 얼음을 띄우는데, 이렇게 하면 커피가 잘 녹지 않고 마시는 사이 점점 농도가 묽어진다. 아이스 커피를 맛있게 만들려면 진하게 볶은 커피로 커피 원액을 만들어 커피 향이 날아가기 전에 얼음이 가득 찬 컵에 부어 급속히 냉각 시킨다. 커피 원액의 양은 한 잔에 40~50cc 정도면 알맞다.

◀구겨진 넥타이는 신문지를 이용

남성 정장의 포인트는 넥타이. 그러나 아무리 멋진 넥타이도 구겨진다면 볼품이 없다. 넥타이는 땀 때 주름이 생기게 되므로 가끔씩 다림질을 해 줄 필요가 있다. 넥타이를 다림질 할 때 누르듯이 다리면 주름은 퍼지지만 납작하게 눌러 모양이 나지 않는다. 신문지를 가늘게 두 개를 말아 넥타이 양쪽 모서리에 넣은 다음 다림질하면 주름도 깨끗하게 퍼지면서 넥타이도 볼품이 살아나고 모양새가 바로 잡힌다.

◀변기의 냄새를 없애는 요령

변기를 사용한 후 냄새가 남아 있어 환풍기를 돌려도 효과가 없을 때에는 성냥 한 개비를 켜다. 성냥을 태우는 냄새가 화장실의 불쾌한 냄새를 제거해 준다. 다만 성냥을 태우고 난 후 충분히 주의가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습도가 높은 날 땀는다.

우리는 맑은 날보다는 구름이 많은 습도가 높은 날이나 비가 온 다음에 땀는다. 더러움도 습기를 머금으면 닦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 닦아서 깨끗하게 하려면 적어도 일 주일에 한 번이나 보름에 한 번은 닦아야 한다. 그 이상의 경우 세제를 사용해서 닦아야 깨끗해진다.

세제로 닦을 경우는 세제 액을 묻힌 걸레로 닦은 후에, 유리 면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마른 걸레로 닦는 것이 요령이다.

◀리본과 스카프의 보관 법

머리 리본이나 선물 포장의 리본을 오랫동안 간직하려면 쓰고 남은 화장지의 심에 감고 클립으로 고정해 두면 된다.

◀양산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법

여름의 여성 필수품 중 하나가 양산이다. 양산이 부분적으로 더러워졌을 때에는 묽은 중성 세제 액에 담갔다 짚 걸레로 닦은 다음, 물로 닦아 내고 그 주변을 물로 분무해서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기획 특집 / 복지화 스승님!

영원한 우리의 부처님이요, 스승이신 복지화 지수님!



복지화 지수님의 생전 모습

한줄기 거센 소낙비가 내린 후, 하늘에는 한 점 티끌없이 푸르디 푸른 창공에 하얀 뭉게구름이 덩실 덩실 춤을 춘다. 회썬 안개로 뒤덮여 있던 서울하늘이 이렇게 푸르고 맑은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음을.....

무명과 어둠의 번뇌에 쌓여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청정한 맑음과 푸르름으로 해탈의 길을 안내해주시는 분!!!

열반하신지 16년이 지났건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영혼의 흔적처럼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모습으로 인생의 여정을 밝혀주시는 등대처럼 어둠속에서 올바른 삶의 빛을 밝혀주시는 분!!!!

당대의 선지자요, 큰 스승님이요, 햇불이셨던 복지화 스승님의 행적을 따라가다 본다.

중생구제 - 구도의 길

복지화 스승님은 1915년 경북 영천의 유복한 가정에서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다운 대장부의 용기와 기상을 간직하셨다. 어린 시절부터 불법에 대한 동경과 관심으로 불교를 유독히 좋아하셨다. 초등학교시절부터 불경을 독경하고 쉽게 이해하고 부처님의 법대로 실천하셨다.

깨달음에 대한 갈망과 더불어 행복만 유년시절을 보내신 스승님은 와세다대학을 졸업한 서돌암이란 남자와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된다. 서돌암 각자님과 복지화 스승님은 일본 나고야에서 큰 사업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행복하고 부유한 생활을 영유하셨다. 1945년 갈망하고 소원하던 조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됨에 따라 한국으로 귀국하여 대구에서 터전을 잡는다.

복지화 스승님은 전생부터 부처님의 법을 받들고 수행하는 수행자의 길을 닦고 오셨기에 30세 초 어린 자녀들을 시택에 맡기고 출가를 결심하여 부처님의 법을 받들고자 하였다.

부처님의 구도자로서 길을 걷기 위해 출가준비를 하던 중 진각종 창종회 회당님의 여동생의 이웃집에서 생활하면서 스승님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생활하는 인연으로 인해 스승님은 진각종을 창종하신 회당님과 인연을 맺게 된다.

스승님은 진각종에 입문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하나의 물거품이거늘, 중생교화의 길을 걷은 사람에게 무용지물일지이다.”라며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재산을 종단에 회사하였다. 스승님은 회당님과 함께 진각종의 창종기틀을 다지셨다. 어렵고 고통받는 중생들을 부처님의 불법으로 제도시키고자 하시는 스승님의 원력으로 포항 보정심인당에서 중생교화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된다.

스승님과 인연을 맺은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소원이 성취되고 병고해탈을 이루는 신비로운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보정심인당은 헤아릴 수 없는 보살들의 행렬로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이다.

진각종 본원인 탑주심인당으로 전출사령장을 받은 스승님은 손수 터전을 마련하고 많은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보살들의 아픔과 슬픔, 기쁨과 괴로움을 함께 했던 보정심인당을 뒤로하고 포항역으로 출발하게 된다. 탑주심인당으로의 전출을 교도들에게 알리지 않고 무념무상으로 왔다가 사라지는 인연의 법칙에 따라 포항을 떠나기 위해 조용히 포항역에 도착한 스승님은 수 많은 교도들이 떠나는 발걸음을 잡으며 울부짖는 모습을 보며 ‘모든 것이 부처님의 인연법이라 인연따라 왔다가 인연따라 헤어지는 것,’이라며 포항 교도들의 정신적 부처님이요, 자상하시고 인지하신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뒤로 하고 포항을 떠나게 된다.

서울에 도착한 스승님은 탑주심인당에서도 위대한 법력과 원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불법으로 제도하셨고, 서대문의 밀인심인당과 용산의 관음심인당을 개설하는 등 그 교세와 법력은 가히 헤아릴 수가 없었다. 스승님의 발걸음 발

찾아와 공양을 할 수 있도록 항상 넉넉히 준비하시어 부족함이 없으셨다.

조용히 좌선하시고 계시는 스승님의 몸에서 흐르는 보이지 않는 법력과 원력은 온 우주를 휘감아 돌며, 은빛 찬란한 무지개가 되어 서원당안에서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오묘하고 신비한 기운이 감돈다.

중생을 교화하시는 모습은 사내대장부 못지않은 대담함과 결단력으로 모든 교도들을 해탈의 길로 인도하신다.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 스승님은 어머니의 자태지만 교화하실 때는 모든 군중을 사로잡는 수행력과 정진력, 마음속에서 짜릿한 감동을 울리게 설법으로 일관하셨다.



원정 대성사와 함께

묵언과 소금밥, 엄격한 계행

“바르게 행동하고 실천해야 진정한 사람”

걸음은 살아계시는 부처님의 발걸음이요, 모든 중생들의 고통과 번뇌를 해결하는 구도자의 발걸음이었다.

1971년 진각종에서 내분이 발생하여 당시 진각종 총인으로 계셨던 원정 대성사님과 더불어 진각종을 떠나 총지종을 창종하기에 이르다

광활한 바다와 수미산 같은 법력

스승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홀홀단신으로 원정대성사님과 총지종을 창종하시면서 단칸방에서 총지종의 새로운 법으로 교화를 시작하셨다. 스승님의 법력과 원력은 아무리 험난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갈매기가 되어 총지종의 창종 기틀을 다지며, 반석위에 올려놓으시는 등불이 되셨다.

수 많은 중생들의 삶의 갈매기요, 안내자요, 지도자이신 스승님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총지사란 큰 서원당을 여시고 열반하시는 그 순간까지 총지사에서 살아계시는 부처님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병고와 경계를 해탈시키고, 올바른 삶의 이정표를 가르쳐주시며 부처님의 정법을 펴셨다.

복지화 스승님의 마음은 온 우주의 모든 중생들을 감싸안고 있는 자비심과 광활한 바다와 같지만 몸에서 흐르는 법력은 수미산보다 높고, 금강력사와 황우장사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활기와 기백이 넘친다.

빈곤과 부유, 병든 사람과 건강한 사람, 훌륭한 사람과 비천한 사람의 차별없이 사원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부처님이라 생각하며, 항상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반갑게 맞이하여 주시고, 사원의 살림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당신의 배고픔과 가난, 안위는 뒤로한 채 배고픈 사람이 언제든지

철저한 계행을 지키시는 수행자의 행동은 사심이 없고, 오로지 모든 중생들을 위하는 부처님의 모습 그대로 이기에 스승님과 인연을 맺은 교도들은 스승님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저 스승님의 모습만 보고, 스승님의 법문만 듣고 해탈을 증득한 사람들도 많다.

스승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또한 불법을 만나기는 더욱 어려우니 인간의 몸으로 태어날 때 열심히 수행하여 선업을 지으라”는 말씀을 통해 차별과 분별이 없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을 강조하시며 상대방의 잘못과 단점을 지적하여 수정하기 보다 스스로 자신의 허물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항상 마음속으로 서원하셨고, 그저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만 계셨다.

복지화 스승님의 법은 바로 부처님의 법이요, 가르침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스승님의 가르침대로 생각하고 실천하면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도 성취되고, 죽을 목숨도 살리시는 신비한 영험을 가지고 계셨다.

스승님은 “많이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라”라며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스승님의 생활은 청빈함과 엄격한 계행을 지키는 수행자 그대로이시다. 초라한 단칸방에서 가진 것은 이불 한 채와 허스름한 옷 몇 벌이 전부이다. 행여 보살들이 스승님께 옷을 보시하면 다음날 그 옷은 형편이 어려운 보살들의 몫이 된다.

험난한 중생교화와 수행의 길

스승님은 매사에 모든 이들에게 다정다감하시고, 많이 웃으시는 인자함과 자비심을 가지고 계신다. 보살들이 어려운 일이 있어 상담하시면 먼저 부처님께 여쭙어 보시는 불공부터 시키신다. 부처님의 법대로 보살들에게 가르침을 전달하시기 위해서다.

스승님의 법력은 신통하기까지 하다. 불치의 정신병과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스승님을 찾아왔을 때 스승님과 함께 며칠 동안 불공하면 불치의 병이 완쾌되곤 하였다.

순수함과 인자한 속에는 엄격함과 위엄성이 상존하고 계신다. 혹여 계행을 어기거나, 불공에 등한시 한 경우에는 엄벌을 내리신다.

스승님은 부처님의 법을 실천하고 전달하기 위해 가정불공을 많이 다니신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병고가 있는 가정은 어김없이 찾아가 위로하고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준다. 평일이거나 자성일을 가리지 않고 거의 매일 부처님의 법을 포교하는 전도선언의 구도자처럼 가정불공을 다니신다. 한때는 퇴전한 보살이 스승님의 가정방문을 거절하며 대문을 열어주지 않고 문전박대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스승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보살이 문을 열어주고 집안으로 모실 때까지 대문밖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신다. 가정방문을 다니실 때는 미리 통보하지 않고 다니신다. 현재 그대로의 모습이 부처님 모습이라며 허례허식을 피하고, 교도가 정을 방문해서 보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물 한컵만 마시며, 가정의 해탈을 기원하는 불공을 올리자마자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신다.

중생들의 아픔을 부처님의 따뜻한 마음과 자비로 어루만지고 위로하기 위해 포교의 일선에서 교화하시는 스승님은 집안일에도 등한시 하지 않으셨다.

“당신의 자녀들이 올바르게 성장해야 남들에게 모범이 된다.”라는 신념으로 시아버님과 시아머님을 극진히 봉양하시고, 1남 3녀의 자녀들을 양육하는데에도 등한시 하지 않으셨다. 교화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자녀들의 건강과 학교공부를 일일이 챙기셨고, 자녀들은 스승님의 가르침과 실천력에 감응하여 어머니를 부처님처럼 받들며 어머니의 가르침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여기며 생활하였기에 자녀들은 모두가 성실하고, 착하게 성장하였으며, 학교생활에서도 우등생으로 졸업하여 사회에서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하였다.

복지화 스승님께서 수행하실 때는 묵언으로 수행하셨고, 49일 불공이 시작되면 소금밥으로만 생활하시는 엄격한 계행을 지키셨으며, 보살들의 근기에 맞게 법을 주셨기 때문에 스승님께서 주신 법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면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없었다고 한다.

육체는 우리결을 떠났지만 스승님의 가르침과 스승님에 대한 그리움은 변하지 않고 우주법계에 상주하고 계시며 늘 우리들에게 올바른 삶의 이정표를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



행복하고 순수한 미소를 전해주는 봄 스튜디오



행복은 마음속에 있는 것,

행복한 마음까지 담아내는 한 장의 사진

사진 속에 감춰진 추억의 책장을 넘기는 순수하고 환한 미소

봄 스튜디오는 여러분에게 행복과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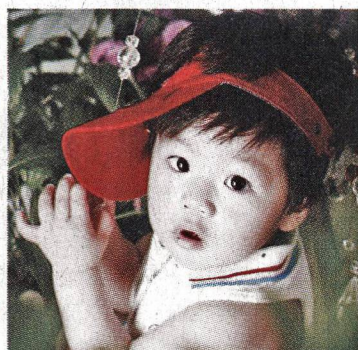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태영프라자 동관2층, 봄스튜디오

찾아오는 길: 지하철 3호선 주엽역 8번 출구 5분거리

전화: 031) 915-3856 정진욱 실장 (송유섭 보살 삼녀)

홈페이지: bomstudio.com



■ 기획연재 1/ 밀교연구소 종학연구실

『敎史를 통해 본 宗祖 苑淨 大宗師의 가르침』 ①



원정 대종사 진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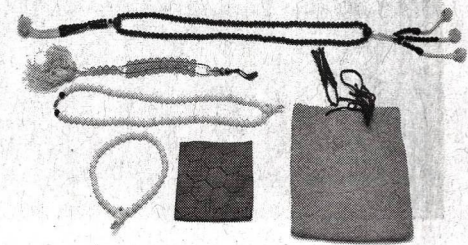
역사란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것이 아니다. 현재 이 시간에도 살아 숨쉬고 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 오늘날 뼈저린 교훈을 얻게 되고 내일을 미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역사를 거울로 표현한다. 역사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기 때문이다. 역사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과거는 단순히 지나간 일이 아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로만 그치지 않는다. 역사는 반복되고 또 이어진다. 유유히 흐르는 강물과도 같다. 같은 장소에서 물결 따라 끊임없이 흐르고 또 흐른다. 도도히 흐르는 강물이 잔잔하다가 상황에 따라서는 큰 폭랑을 일으키기도 한다.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와같은 흔적을 통해 교훈을 얻고 지혜를 얻는다. 그래서 역사는 중요하다. 역사는 골동품이 아니고 살아 있는 일상용품이다. 과거를 먹고 사는 사람은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다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좋았던 시절의 추억에만 젖어 있는 경우이다. 단순히 과거의 일과 역사는 질적으로 다르다. 역사는 기록으로써 생명력을 갖는다. 문자와 기록이 없다면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 속에 묻히고 말 뿐이다. 수많은 왕조실록들은 오늘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것이다. '현재의 일들을 기록으로 남겨라. 한번 지나고 나면 과거는 되돌아오지 않는다. 기록해서 남겨두는 일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고 말이다. 기록으로 남겨두었을때 연구와 분석, 더 나은 내일을 설계할 수 있다. 그래서 연구하고 분석하는 학문이 있는 것이다. 역사학(歷史學)이다.

총지종의 종조 원정 대종사께서 남기신 자료 중에는 중요한 것들이 많다. 그 가운데 『총지종 교사(總指宗 敎史)』는 종단의 교상과 사상, 종

조נם을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재산1호라 할 수 있다. 공부할 것이 너무나 많고 연구거리 또한 무궁무진하다. 종조님과 사료(史料)들이 참으로 고마울 따름이다. 종조님의 숨결이 느껴진다. 종단의 역사는 중요하고 앞으로 계속 기록되어야 할 불사다. 종단의 역사를 연구하고 여기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기록은 더욱 중요하다. 역사를 기록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일은 사소한 것 같으면서도 막중한 것이다.

다음 호부터 10회에 걸쳐서 교사(敎史)를 통해 종조님과 총지종의 교상과 사상, 창종 당시의 모습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원정 대종사 유품.

연재할 기사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1. 비밀의궤의 제정 등으로 밀교종단의 기틀을 마련하다.
2. 창종 당시에 모든 것을 일구시다
3. 경전의 번역으로 밀교를 말하다
4. 본존(本尊)과 의식(儀式)의 결정
5. 종단의 상징을 육화상으로 나타내다
6. 불보살의 세계-현도 만다라로 펼쳐다
7. 준제관음상을 모시다
8. 실천수행법으로 사중법을 시행하다
9. 정진불공으로 결정하다
10. 법의(法衣)와 도량(道場)의 변천

-법경 정사/ 밀교연구소 수석연구원
(다음호에 계속)

신행제법 45

“49일 불공으로 소원 성취했어요”

양 순 화 보살

(부산 관음사)

관음사 교도 양순화(경인생)보살님의 막내 따님(임술생 김인옥)은 일본에서 박사과정 유학을 마치고 귀국할 즈음 부산대학교에 교수자리가 나서 지원을 했지만 떨어져 실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산란해진 마음을 가다듬고 더욱 더 불공 시간도 늘리고 회사법도 늘려 가

감사하고 미안해서 “은애불공”을(감사불공) 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인옥 따님이 박사과정의 유학을 마치고 귀국할 즈음 부산대학교에 교수자리가 나서 지원을 했지만 떨어져 실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산란해진 마음을 가다듬고 더욱 더 불공 시간도 늘리고 회사법도 늘려 가

분명히 길조의 현상을 암시하고 있음을 직감한 양순화 보살은 곧 따님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국립환경연구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하튼 김인옥 따님이 아직 어린 나이(만28세)에 국립환경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발탁되어 취직을 하게 된 것은 다 부처님의 공덕이라고 믿고 있으며, 김인옥 따님도 모든 것은 부처님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막내 딸 환경분야 최연소 박사로 길러내

면서 부처님께 매달리며 보살님들이 안게시는 저녁 늦게까지 김인옥 따님의 취직이 원만 서원불공을 지심으로 하였습니다.

이때는 오로지 부처님만 생각하며 욕심과 번뇌의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49일을 정해서 불공을 했는데, 49일 불공 마지막 회향 다음날 양순화 보살님 각자님의 꿈에 봉황 4마리가 마당에서 놀고 있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이 꿈은 부처님께서

양순화 보살님께서는 항상 지극정성으로 소원하고, 부처님께 감사불공을 하면 모든 일이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매달리다 보면 반드시 소원을 성취한다고 합니다. 양순화 보살님은 매일 매일 관음사 서원당에 나와 부처님께 감사하는 불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 관음사 이선경 통신문

세상사는 이야기

오늘 아침부터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다. 빗줄기의 모습이 심상치 않다. 텔레비전에서는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 되었다고 한다. 역시 장맛비는 다른 비와 다른 것 같다. 시작부터 기세 등등한 모습으로 찾아와 장마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우리 나라는 계절마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 번씩 장마철을 겪어야 여름맛이가 된다. 올해도 어김없이 장마가 찾아왔다. 해마다 연중 행사처럼 겪는 물난리를 또 만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내가 시작부터 괜한 걱정을 하는 것 같다.

나는 비 오는 날을 좋아한다.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사색의 시간도 갖게 해 주고 책 읽기 좋아하게 해 준다. 장마철에 잘 읽지 않던 책도 꺼내 들게 된다. 문득 생각의 저 깊이를 골짜기로 여행을 떠나게도 한다.

지난 어느 해 여름 친구들과 찾았던 창경궁에서 비를 만났다. 우리들은 궁궐 처마 밑에 웅크려 앉아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여기저기 모여서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었다. 비 오

는 날의 궁궐은 마치 우리들이 임금님이 계시던 그 때로 돌아간 듯, 상념의 세계로 빠져 들게 한다.

그 옛날 임금님께서는 장마철을 어떻게 대비 하셨을까? 임금님께서는 장마철에 부침개 드시기 좋아하셨을까? 그때 내가 궁궐에 살았다면 어떤 신분이었을까? 깊이 생각 할 것도 없이

다 향기롭고 마음 속 저 깊은 곳까지 파스한 온기를 전해 주었다. 비를 피해 앉아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줄기를 쳐다 보며, 땅에 만들어 놓은 동그란 낙수 자국을 보며 즐거워했던 아련한 추억 속으로 점점 더 빠져든다. 그때는 비 오는 것이 정말 그 어떤 것 보다 멋지고 아름다웠다.

빗속에서의 여러 가지 추억이 한꺼번에 밀려 온다. 멀지 않은 어느 해 비로 인해 인적이 거의

비오는 날의 상념

내 마음대로 공주나 왕비쯤으로 정해놓고 기분이 좋아 저절로 웃음이 얼굴에 퍼진다. 괜히 남에게 들린 것 같아 얼굴이 빨개지려 해 고개를 돌려 버린다. 상상의 세계에서 난 궁궐 뜰을 거닐고 있다. 한껏 화려한 차림으로.

친구의 커피 권하는 소리에 난 현실 세계로 돌아왔다. 잠깐이지만 행복했던 순간이었다. 궁궐 처마 밑에서 내리는 빗줄기를 보며 마시는 커피 한잔은 내가 마셔 본 것 중 그 어떤 것 보다 그 때를 생각하면 그 곳으로

달려가고 싶다. 어느 해 지인들과 함께 수원 화성과 정조 임금님의 능을 찾았던 때도 생각난다. 그때도 간간히 비가 내렸다. 비 오는 탓인지 사람들도 많지 않았다. 조용하고 고즈넉한 왕릉은 색다른 감회를 우리들에게 안겨 주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정조임금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참고 또 참았을까? 새삼 얼마 전에 끝난 TV 드라마 '이산'이 생각난다.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비 쏟아지는 밖을 내다 본다. 바람 속에 나뭇잎들이 비를 맞으며 서 있다. 나뭇잎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아름답다. 마치 서로 속삭이 거라도 하듯이 사그락 사그락거린다.

난 빗소리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지붕 위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도 좋고 유리창을 크게 때리는 세찬 빗소리도 좋고 우산에 떨어지는 후둑 후둑 소리도 좋다. 굵은 모래에 떨어지는 아주 작은 빗소리도 좋다. 온갖 빗소리들이 모여서 화려한 관현악을 연주 하고 있다. 나 하나의 관객을 위해.

- 박묘정

종조탄신 100주년 기념 종조법설집 명상용 CD, 테잎 보급



불교 총지종은 종조탄신 100주년을 기념해 종조법설집 명상용 CD와 테잎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출시된 종조법설집 명상용 CD와 테잎은 편안한 배경음악에 전문성우의 음성을 더빙해 누구나 듣기 쉽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책으로 된 종조법설을 귀로 들을 수 있게 한 것은 원정 종조님의 사상과 유훈을 이땅에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큰 의미가 있는 불사 일 것입니다.

종조법설집 명상용 CD와 테잎구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불교 총지종 통리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불교총지종통리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76-2 / 전화 02)552-1080~3 / 팩스 02)552~1082

진언행자를 찾아서 | 부산 성화사 법정행 보살

“무심(無心)으로 불공해서 안심입명 했습니다”

서기 527년 남천축국 스리랑카에서 불법을 전하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 온 달마스님은 평소 불교를 숭상해 불심천자(佛心天子)라 불리는 양나라 무제와 만났다.

양무제 왕 “스님, 내가 큰 절도 많이 짓고 경전도 수없이 편찬하고, 많은 스님들도 양성했습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에 어떤 공덕을 쌓은 것입니까?”

달마 스님은 무뚝뚝하게 “무(無)”라고 답했다. 무제는 깜짝 놀라 다시 물었다.

“아니 어찌하여 그 많은 행위들에 아무런 공덕이 없다 하시오?”

달마 왕, “그런 외형적인 행위들은 사람과 하늘의 인과에 대한 흔적으로 마치 사물의 그림자와 같이 실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헛된 것입니다.”

양무제는 이것껏 공들인 것들에 공덕이 없다 하니 혼란스러워 졌다.

“그럼 참된 공덕이란 어떤 것이요?”

“그것은 맑은 지혜와 같이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서 세상에 행위로써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허탈해진 무제는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것이 성스러운 것이요?”

“성스럽다는 것은 저 허공처럼 확 뚫려 있는 것이기를 무엇으로 규정짓는다는 말입니까? 그런 세상에는 전혀 성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전등록에 전해지는 얘기가.

“아 무 생각없이 한 일이에요. 그저 아무 생각없이 불공때가 되면 불공하고, 절에 일 생기면 가서 돕고, 이번 불사도 그런 무심한 마음으로 했던 거죠.”

성화사 법정행(허태연, 59) 보살. 15년간 회장으로 있으면서 묵묵히 대소사를 치러내고 얼마전엔 양부 만다라와 미려한 양식의 동참관 불사까지 회향했다. 가천만원을 선포, 회사할 마음을 내서 오랜시간 애쓴 불사를 놓고 “아무 생각없이 한 일”이라니.

그건 <금강경金剛經>의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고(應無所住 而生其心), 상을 내지 말고 보시를 하라(無住相布施)’는 부처님 가르침을 잘 실천한 것이 아닌가.

법정행 보살은 수행도 무심하게 한다. 남들 다 하듯 월초 지키고, 자성일 지키고, 대중시간 외에 하루 서너시간 정도 불공한다.

“평상시엔 자고 일어나서 아침정승 하고 절에 가요. 서원당에서 불공 좀 하다가 오후엔 회사고나 정리하고 놀다 가는 거죠”

그 대신 버스타고 가면서, 집에서 TV보면서 염주를 쥔다고. 총지종의 지포인 ‘생활시불공(生活是佛供)’을 하는 셈이다.

기업하는 남편의 뒷바라지와 역시 기업하는 두 아들의 어머니로, 사찰 회장 보살로, 바쁘다고 할 만도 하건만 보살은 그저 무심하게 산다. 담연(淡然)한 것이 오히려 깨달음에 가까웠다. 그래서 무심이 도(道)라 하지 않던가.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구하는 게 없이 사니 오히려 형통하는가 보다. 법정행 보살은 최근 낙동강변에 제법 큼직한 한식당을 냈다.

“불사를 원만하게 회향할 수 있었던 건 지광 주교님의 가르

아들이 있었다.

각자님은 부산에서 40여년간 조선업체 굴지의 회사를 경영해 온 사업가로 얼마 전엔 부산 향토기업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사업으로 눈코 뜰 새 없는 일정을 쪼개 성화사 단월회 활동을 하며 보살의 든든한 후원자가 돼 왔다. 이번 불사에서도 각자님의 지원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가업을 이어 계열사를 경영하고 있는 두 아들 역시 어릴 적 자성학교를 다니는 자성동이었고, 과산 수련회에 곧잘 참가하여 어머니를 흠족케 했다.

누구에게나 그렇듯 법정행 보살에게도 그들과 어려움은 있었다. 삼년 전 보살 부부가 독일 여행을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작은 아들이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낯선 곳에서 급행열차를 갈아 타고 천신만고 끝에 귀국해 아들을 찾았다. 기적적으로 생명은 구했지만 의식불명였다. 상해부위가 커서 입담하기만 했다. 보살은 그 길로 불공에 매달렸다. 절박한 만큼 간절한 불공이 되었던 걸까. 아들은 일어났다. 주위에선 어머니 불공 때문에 살아 났다고들 했다.

“나중에 들은 말이지만 아들이 혼미한 의식 속에서 작고한 할아버님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조상님 불공을 열심히 하던 시간이었거든요. 부처님과 조상님들이 가호하셨던 것 같아요.”

그같은 일들은 법정행 보살의 신심이 한층 증장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보살의 신심을 증장시킨 또 한 가지 난관이 있었다. 사고를 신봉했던 시어머니를 23년간 봉양하며 오랜 갈등을 겪은 것이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믿음을 강요했고, 보살은 반발심에 밖으로 다니며 갈등했다. 그러다가 성화사 교



“불교는 마음을 궁구하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성취나 많은 복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 마음 밝혀서 나와 남을 제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일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그걸 가르치신 것이구요.”

인터뷰를 마치고 수첩을 덮고는 오랜 임원생활에 어려움은 없었냐고 물어 보았다.

역시 느긋하고 무심한 한 마디가 돌아 왔다. “없어요”

“...”

부산=윤우재 기자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 가르침 몸소 실천 15년간 회장으로 묵묵히 대소사 치러내

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해 전 성화사에 부임하신 후 도량이 조금씩 변모하기 시작했죠. 성품이 깔끔하시고 부지런하셔서 가만히 안 계신답니다. 후락한 것들을 하나씩 손 보셔서 정갈하게 다듬어 놓으셨습다. 그야말로 ‘도량정정, 마음청정’이 된거죠.”

법정행 보살의 신심과 원력 뒤엔 각자님(정화섭 63)과 두

도였던 친구의 권유로 절에 오게 되었다. 당시 주교였던 정정심 스승님은 “내 배가 부르려면 내 손으로 직접 밥을 떠먹어야 할 것, 아님가, 한 번 해보지”며 독려했다고 한다. 그렇게 49일 불공을 다녔고, 이후 20년간 성화사는 법정행 보살의 수행처이자 안식처가 됐다.

절에 다니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시어머니에게는 불교충전 같은 경책을 가져다 드리고 간곡하게 입교를 말씀드렸다. 우여곡절 끝에 49일 불공을 마친 시어머니는 환희한 마음에 당시 제일로 좋은 호미가 상을 열 두개나 보시했다고 한다.

“그땐 시어머니가 그저 어렵고 불편했어요. 이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공을 하면서 그만큼 지혜로워진 것 같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월초 불공하고, 자성일 보고, 재불공 하고, 계행 지키고 평범하게 산다는 법정행 보살은 그래도 요즘엔 좀 느긋한 마음이 들기는 한단다. 규모는 작더라도 중창불사를 무사히 마쳤고, 사업은 순조롭고, 자손들도 안정을 되찾고, 여러 일들이 하나 하나 이루어졌으니 말이다. 이제부터는 마음 찾는 공부에 공을 들일 심산이라고.

진언행자 가족을 찾습니다

총지종 진언행자로 모범적인 수행을 하고 있는 진언행자 가족을 총지종보사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2)552-1080



제2회 만보사 연꽃축제

진흙탕속에서도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기도 합니다.

연꽃절을 맞아 만보사에서 정성껏 연꽃축제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안복을 누리시고 그 성품을 닮아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 일시 : 총기 37년(2008년) 7월 17일 ~ 7월 22일
- 장소 : 만보사

불교총지종 충청전라교구 만보사(주교 : 지성)
대전 광역시 중구 대사동 152-4 ☎ (042)255-7919

